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통한 칼뱅의 권징 이해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역사신학 전공

송 용 섭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통한 칼뱅의 권징 이해

지도 박 경 수 교수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송 용 섭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역사신학전공

2007년 8월

송 용 섭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박 경 수 교수 _____ 인

부심: 김 인 수 교수 _____ 인

부심: 임 희 국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7년 8월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여기까지 도움을 주셨던 에벤에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학문 없는 범인’과 같은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대학원의 학업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고 도와주셨던 동승교회 서정오 목사님과 이정자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목회일정 가운데서도 늘 배려해 주셨고, 많은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영성으로 멘토와 같이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둘째로 참으로 부족한 종을 기꺼이 지도해주시고, 편달을 해 주셨던 박경수 지도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칼뱅신학에 대한 귀하고 좋은 책들과 자료, 논문들을 직접 챙겨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논문의 단점에는 엄한 지도와, 장점에는 아낌없는 격려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권징과 논문의 구성, 진술의 방식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김인수 교수님과 임희국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도 자료들을 정리해 주셨던 김희택 장로님, 장진선 집사님, 본 논문을 편집해 준 김민태 전도사님, 책자를 만들어 주신 오세복 집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주신 부모님 송원봉 집사님, 신정숙집사님, 김행수 장로님, 윤정님 권사님, 세상에 가장 적합하고 현숙한 나의 아내요 동역자인 김은실 사모, 논문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내주었지만 넓은 마음으로 아빠를 배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두 아들, 주은이와 준서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시간동안 이 논문을 통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송 용 섭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II. 칼뱅의 권징 이해	6
A. 16세기 권징에 대한 다양한 이해	6
1. 로마가톨릭의 권징	6
2.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권징	8
3. 재세례파의 권징	11
B. 『기독교강요』의 권징	16
1. 1530년대 상황과 『기독교강요』	16
2. 교회의 표지와 권징	20
3. 『기독교강요』와 권징	22
a. 권징의 성서적 배경	24
b. 권징의 필요성	27
c. 권징의 목적	28
d. 권징의 주체	32
e. 권징의 절차	35
III. 칼뱅과 제네바 컨시스토리	39
A. 컨시스토리의 이해	39
1. 컨시스토리의 형성	40
2. 컨시스토리의 조직	43
3. 컨시스토리의 활동	45
4. 컨시스토리의 목적	48

a.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화	48
b. 출교와 회복	49
B. 컨시스토리의 의의	54
1. 칼뱅의 재발견	55
2. 제네바시의 재발견	58
3.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60
a. 한국 장로교회의 권징	60
b. 교훈	63
IV. 결론	64
A. 요약	64
B. 제언	67
참고문헌	72

I. 들어가는 말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한국 장로교회는 새로운 ‘도전과 응전’에 직면해 있다. 도전이라 함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권위와 질서를 상실한 나머지 사도적 교회로서의 위상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응전이라 함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 교회는 스스로의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함을 일컫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교회는 내적으로는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고, 외적으로는 참된 교회의 가시적 표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과 개혁교회로써의 전통을 회복하고, 2000년 교회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여 이 땅에서 가시적인 참된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본 논문은 칼뱅의 신학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하여 참된 교회의 가시적 표지를 재확인하고 권세 있는 교회로서 치리와 권징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칼뱅의 개혁교회 사상과 특히 권징을 중심으로 한 교회정치 사상을 연구함으로써 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화해, 용서와 회복 그리고 교육과 훈련, 더 나아가 성도들의 삶을 성화시켜 가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루터의 ‘이신칭의’ 사상을, 칼뱅이 강조한 ‘성도의 삶’으로 발전시켜 권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행함으로 구원을 표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강조한다.

지금 한국 장로교회는 정체현상에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6세기의 종교개혁 사상으로 돌아가 가시적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칼뱅의 권징과 함께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연구, 고찰함으로써 교회의 정체현상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16세기 종교개혁 사상의 큰 그림 속에서 참된 가시적 교회의 표지와 권징을 연구함으로써 권징을 회복하는데 있다. 칼뱅의 신학사상과 교회론을 재정립하고 특히 권징과 치리를 통한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칼뱅신학에 있어서 권징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다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권징과 치리를 매우 강조하였고, 그것은 곧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 “신정도시”, “프로테스탄트의 로마”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교회의 정치신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뱅이후 그의 제자들은 권징을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 인정할 정도로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다.

칼뱅은 교회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 즉 세례와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칼뱅신학에 근거를 가지고 참된 교회의 표지였던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3번째 표지로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했던 권징과 치리를 고찰하는데 있다. 한국장로교회는 이러한 칼뱅의 권징사상과 개혁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권징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과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작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교회는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¹⁾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될 때 공동체의 거룩함과 화해와 일치, 훈련과 성화는 날마다 전진해 가는 것이다. 은혜의 외적수단인 교회는 거룩함으로 권세를 회복할 때,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

칼뱅의 장로교 특징은 루터의 만인제사장 신학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다. 루터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중세의 피라미드식 계층질서의 직제에 반대하였고, 교회의 본질은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면이 더 중요하며, 복음을 교회의 본질로 보았다. 루터는 『로마의 교황주의 관하여』(1520)에서 교회의 표지를 “세례, 성만찬, 복음 설교”라고 했고, 이것을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는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세례와 성만찬이 집행 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였다.²⁾ 본 논문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판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새로운 교회 이해와 종교개혁전통을 재정립 하고자 한다. 참된 교회의 표지와 직제문제, 특히 로마가톨릭의 종교재판과 다른 칼뱅의 권징을 통하여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찾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하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33.

2) 이형기, “칼빈 신학에 있어서 목사직과 장로직,” 『교회와 신학』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겨울호, 2003), 25.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칼뱅의 권징을 통하여 장로교회의 정치사상을 고찰하는데 있다. 칼뱅의 권징은 장로제도와 매우 관계가 깊다. 교회의 직제는 4중직으로 되어 있는데 목사, 장로, 집사, 교사이다. 이러한 명시적 정의는 요하네스 오이쿨람과 디우스와 마르틴 부처의 직제론에서 영향을 받았고, 슈트라스부르크 체류기간 이후인 1541년 제네바 『교회법령』(*Ecclesiastical Ordinances*)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은 만인제사장 신학의 연장선에서 차별이 아닌 구별이요, 차이가 아닌 동역이며, 서열이 아닌 기능이였다. 결국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직책’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신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장로교회의 직제 또한 피라미드식 계층 간의 상하질서로 인식되었고, 직제간의 주도권 갈등과 향존직의 선거를 보면 개혁교회 안에 또 하나의 중세 가톨릭교회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정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로,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 개혁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 참된 교회를 지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도 칼뱅의 권징이해는 직제와 교회정치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제네바의 컨시스토리(Consistory)를 연구하는데 있다. 칼뱅의 권징과 치리는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칼뱅의 권징사상과 치리는 신학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를 통해 실제로 나타났다. 이런 면에서 제네바의 컨시스토리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신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쳤고, 이를 돕기 위하여 컨시스토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칼뱅의 신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려 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치리법원으로 칼뱅의 신학과 제네바시, 그리고 평신도들의 삶을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었다. 따라서 컨시스토리에 대한 연구는 칼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제네바시의 평신도들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며, 최근 칼뱅신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동향까지 제시해주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칼뱅에 대하여 “완고한 치리자, 냉정하고 무차별적이며 따뜻한 가슴이 없는 신학자”³⁾ 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3) Richard R. De Ridder, "John Calvin's View on Discipline: A Comparison of

칼뱅에 대해 재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칼뱅이 일생을 다 바쳐 헌신했던 제네바시 교회와 컨시스토리 사역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참된 교회를 추구하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훈련했던 목회자요, 상담가요, 신학자였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기독교강요』에 나타났던 칼뱅의 권징과 치리 신학이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1910-30년대 한국교회에서도 엄격한 권징이 나타났었는데, 칼뱅의 권징과 컨시스토리의 원리와 정신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와 당시 한국교회의 당회는 평신도들에게 복음과 삶의 일치를 가르쳤고, 교회는 신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가르쳤다. 권징의 목적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정죄하고 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훈련과 교육, 그리고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함으로 같이하고 있다.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크게는 사도적 신앙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 16세기 종교개혁 사상과 칼뱅의 교회론의 연속선상에서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와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수단’로서의 한국교회의 권세를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의 방법은 칼뱅의 기독교강요와 제네바 컨시스토리 문서를 1차 자료로 연구할 것이다. 『기독교강요』에서는 칼뱅의 교회론과 관련된 전반적인 권징사상을 살펴볼 것이며, 칼뱅의 개혁사상과 권징이 잘 실천되어 나타났다고 보는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를 그 대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6세기 다양한 권징의 이론에 대해 살피되, 로마가톨릭,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급진적 개혁자로 불리는 재세례파의 권징에까지 다양한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 사상의 총화’라 할수 있는 칼뱅의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판이 나왔던 1559년 『기독교강요』까지 칼뱅의 교회론을 연구하고 특별히 권징과 치리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The Institution of 1536 and The Institute of 1559," *Calvin's Ecclesiology : Sacraments and Deacons*, edited by Richard C. Gam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2), 223.

다. 개혁교회는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참된 교회를 찾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칼뱅의 『기독교강요』에서 나타난 권징과 치리 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칼뱅이 강조한 가시적 교회의 참된 표지와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컨시스토리는 칼뱅의 요청으로 제네바의 『교회법령』에 따라 1541에 형성된 치리법원이었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칼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신학과 복음적 삶이 잘 나타나 있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평신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성화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의 형성과 조직, 활동, 목적 그리고 의의를 연구하고, 더 나아가 16세기 칼뱅과 제네바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오늘의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컨시스토리의 활동이 구체화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1555-1556년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컨시스토리 기록이 고대 불어로 기록되어 판독하기가 어렵고 그 자료 또한 매우 소수이기 때문이며, 1555년 이후에는 컨시스토리의 본격적인 활동과 결과들이 나타났고, 1556년에는 제네바시에서 일반심방(general visitation)제도가 시행하면서 평신도들의 삶을 더 많이, 더 가까이 감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나타난 칼뱅의 권징 사상과 치리를 살펴보고, 그런 칼뱅의 신학과 권징사상이 아주 잘 나타났다고 보는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를 연구의 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칼뱅의 권징이 주는 교훈과 정신을 본받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장로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 가도록 ‘교회의 표지’와 ‘성도의 표지’를 재정립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복음의 합당한 생활이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는다.

II. 칼뱅의 권징 이해

A. 16세기 권징에 대한 다양한 이해

1. 로마가톨릭의 권징

애비스(Paul D. L. Avis)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저항한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의 중심적인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또 인간은 세상 어디에서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가?”⁴⁾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주장하였고, 전형적인 도시개혁자였던 츠빙글리와 칼뱅은 ‘참된 교회의 회복’을 주장하였다.⁵⁾ 따라서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판하면서 참된 교회와 참된 믿음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특별히 칼뱅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직제, 권징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참된 교회를 찾고 세우고자 하였다.

츠빙글리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소수의 성직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곳이며, 교회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다고 믿었다.⁶⁾ 그리고 이러한 교회론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직제와 권징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칼뱅은 중세교회가 갖고 있는 재판권과 부패한 권징에 대해 비판하였다.

사도적 교회에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재판과 권징의 절차는 장로회의를 통하여 시행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그 본래의 상태에서 서서히 부패하여 암브로시우스 시대에는 오직 성직자들만 교회의 재판을 담당하였다.⁷⁾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에서 장로들의 권고가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았다. 어떤 소

4) Paul D.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Wipf & Stock Publishers, 2002), 2.

5) Timothy Gorge, 이은선, 피영민 역, 『개혁자들의 신학』 (서울: 요단출판사, 2000), 9.

6) Paul D.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서울: 컨콜디아서, 1987), 62.

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258.

홀함 때문인지는 모르나 어찌면 학식 있는 자들의 게으름, 아니 자기들만이 중요한 자들임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 교만 때문일 것이다.”⁸⁾고 하였다. 16세기에는 교회에 우선적으로 주어졌던 법과 권한을 감독이 홀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마치 의회가 모두 해체되고 의장 홀로 도시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과도 같았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전체에 주어진 권세를 한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폭력과 만용이 있었고 또한 교회에 속한 것을 빼앗아 차지하고도 그리스도의 영께서 친히 제정하신 장로회의를 억누르는 것은 지극히 사악한 처사로 인식하게 되었다.⁹⁾

악은 또 다른 악을 조장하듯이 감독들은 이러한 재판권을 행사하고도 부족하여 그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 결과 그 권한을 시행하는 관리들까지 생겨났다. 따라서 교회의 감독들은 세속적인 재판관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소송은 오로지 세속적인 재판이었으며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영적재판”이라 불렀고, 죄로 가득한 시끄러운 법정을 가리켜서 “교회의 법정”이라고 하였다. 그것을 위해서는 “칼의 권세”도 서슴지 않는다. 거기서는 정죄를 받고 두 번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출교의 절차가 취해졌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았고 연기를 해도 경고를 받았으며, 조금 후에는 출교를 당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칼뱅은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나 고대의 전통과 교회적인 절차를 닮은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¹⁰⁾

칼뱅은 중세교회의 재판들은 심지어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뿐 아니라 묵인함으로써 오히려 그것들을 조장하였고, 심지어 성직자들 자신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았다. 자기들이 묵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돈을 뜯기 위해서 몇 명을 소환하기도 하였다. 로마가톨릭 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영적 재판권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절차와 어긋나며, 마치 빛과 어둠이 서로 정반대된 것만큼 이들의 실제 역시 고대교회의 전통과 정반대된 것이라는 사실을 칼뱅은 지적하였다. 교황과 그의 모든 신복들이 자신들에게 돌리는 그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불경한 횡포와 같다고 여겼다.¹¹⁾ 칼뱅은 세속적 권세와 제사

8) Ambrosiaster, *Commentary on 1 Timothy. 5:1*에서 재인용.

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258-59.

10) 위의 책, 259.

장의 권세에 대하여 출애굽기 18:13-26을 근거로 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질서는 세속적인 통치로써 모세의 임무로 남아 있게 되고, 제사장의 임무는 그의 형 아론에게 주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것을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본 칼뱅은 그 어떠한 감독도 칼의 권세를 거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칼뱅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칼의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눅 12:14)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재판하는 직분을 거부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종하시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의 종들로서도 마땅히 이를 따라서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로마가톨릭교회를 비판하였다.¹²⁾

2.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권징

칼뱅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일평생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는 참된 교회를 위하여 일생을 노력하였다. 그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는 교회에 의하여 잉태되고 양육 받으며 죽을 몸에서 벗어나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교회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¹³⁾고 하였다. 이러한 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는 영적 질서가 중요하였다. 그 질서를 위하여 칼뱅은 교회정치 원리를 말하였고 성경대로 교회가 다스려짐으로써 신자들은 거룩한 모임에서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법에 따라 교회가 보존되고, 인간 공동체가 아름다움과 절제라는 상호 유대감 속에서 질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¹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정치가 장로정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의 개혁운동은 장로정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루터의 만인제사장 사상이 확산되면서 모든 성직자 사이의 평등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평등사상은 장로정치의 기초를 마

11) 위의 책, 259-60.

12) 위의 책, 261.

13) J.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Edited by John T. McNeill, vol 2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 1205.

14) 위의 책, 1206.

련하게 되었다. 필립 멜란히톤(Philip Melanchthon), 울드리히 츠빙글리(Huldreich Zwingli), 마르틴 부처(Martin Bucer), 존 아 라스코(John à Lasco)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성경적 교회와 정부체제가 밝혀졌고 그와 함께 장로교 정치가 발전하게 되었다.¹⁵⁾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학이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으며 그릇된 교회 전통에 있었음을 역설하였다.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고 외치면서 성경이 교훈하는 데로 교회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고, 1520년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에 대항하는 만인제사장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세의 사제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교회의 계급구조를 타파하여 성경적인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루터는 권징의 권한이 교황에게 있지 않고 지역 교회의 감독에게 있으므로 지역 교회의 감독이 권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칼뱅의 권징은 루터의 만인제사장 사상과 츠빙글리의 권징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루터는 평신도가 만인제사장으로서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차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중세 사제들의 열쇠의 권한 역시 평신도들에게 옮겨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평신도들의 만인제사장직은 교회의 혼돈과 무질서로 갈 수 있어 『교회의 바벨론 포로』와 『독일귀족에게 고함』에서 회중의 전체를 대표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특수 교역직을 구별하였다. 특수 교역직은 만인제사장의 보편교역직과는 다르며, 그 누구도 공동체의 동의나 선임자의 부름 없이 이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⁷⁾

결국 이러한 루터의 특수 교역직은 칼뱅이 장로정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정과 부패로부터 단순히 교회를 개혁하려 했다면, 칼뱅은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미신적인 예배와 무지, 오류로부터 오염된 신앙을 바로잡고 교회 그리고 정부 형태 등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15) 오덕교, 『장로교회사』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6), 81-82.

16) 위의 책, 83-84.

17) 이형기, “칼빈 신학에 있어서 목사직과 장로직,” 26.

츠빙글리는 루터와 동시대의 인물로 칼뱅보다는 25년이나 앞서 장로교 정치의 기초를 놓은 취리히의 개혁자였다. 그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연구하여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 설교, 공개토론, 그리고 권징을 통하여 교회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¹⁸⁾ 츙빙글리에 따르면 교회는 말씀으로 먹여지고 성례로 양육되어야 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지역교회라고 하였다. 그는 악한 자들이란 잘못을 범한 신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신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치리를 시행하고, 목회자의 취임과 교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⁹⁾

츠빙글리는 가톨릭교회를 넘어서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순결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권징이라고 생각했다. 권징의 종류에는 회중 차원의 개인적인 권면,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의 권징, 그리고 교회에 보고하여 시행하는 교회적 권징이 있다고 하였다. 치리의 종류에는 권면, 견책, 수찬정치 등이 있으며 가장 무거운 것이 출교인데 츙빙글리는 출교권이 교회가 아닌 세속 정부에 있다고 하였다. 출교권이 세속정부의 관할 아래 두어 취리히에서는 정부가 교회를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츙빙글리의 가르침은 취리히 정부에 권징위원회(Board of Discipline)를 두게 했고, 2명의 목사, 회중을 대표하는 2명의 장로, 그리고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2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권징위원회의 사명은 취리히 사회의 도덕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징계를 결정함으로써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²⁰⁾ 츙빙글리는 권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 파문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회개한 사람을 다시 받아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권징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하였다.²¹⁾ 이러한 츙빙글리의 권징과 취리히 정부의 권징위원회는 훗날 칼뱅의 컨시스토리를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18) 오덕교, 『장로교회사』, 86-87.

19) W. P. Stephens, *Zwingli: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경수 역,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81-82.

20) 위의 책, 87-88.

21) W. P. Stephens,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190-91.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부처는 한층 더 권징을 강조하였다. 그는 권징과 규율이 교회의 특징이 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랑의 규율위에 말씀과 성례전에 함께 첨가되어야 이 진정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처는 루터와 칼뱅이 그러했듯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동시에 권징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말씀에 의한 가르침의 사역과 합법적인 성례전의 시행, 그리고 신자들의 거룩한 삶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권징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규율과 파문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²²⁾(Wo kein und Bann ist, ist auch kein Gemein)고 하였다. 부처는 견책, 경고 및 규율의 권징을 시행하기 위하여 치리 장로직을 둘 것을 고안하는데 칼뱅의 장로정치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이콜람파디우스(Oecolampadius)는 교회의 존립에 있어서 규율과 권위를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볼프강 카피토(Wolfgang Capito)는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탄생되었지만 규율이 없이는 결코 강력해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국의 종교개혁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순교자 피터(Peter Martyr)도 말씀과 성례전, 그리고 언제나 규율(형제간의 상호교정)이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²³⁾

3. 재세례파의 권징

16세기의 종교개혁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에서는 반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과격한 종교개혁 그룹으로는 급진적 개혁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그룹으로 분리주의를 지향했던 재세례파가 있다. 재세례파는 교회론에 큰 관심을 두었고 “복음주의적 분리”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존립과 유지가 어렵다고 보았다. 규율을 어긴 자들을 재세례파 공동체의 사립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떼어내었다. 재세례파의 규율은 교회의 필수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추방의 실천이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²⁴⁾ 따라서 재세례파는 구원의 목적과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강력한 권징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들의 권징사상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2) Paul D. L. Avis,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65-66.

23) 위의 책, 66-67.

24) 위의 책, 77.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례전을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e*)를 강조했을 때, 재세례파는 말씀과 성례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재세례파는 우선적으로 의식적인 신앙과 지식을 강조하였고 거기에 근거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례, 경건한 삶과 진실한 형제애가 있는 공동체 건설, 그리고 성결을 중요하게 강조하여 교회와 세상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삶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권징을 실시하였다.²⁵⁾

재세례파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휘브마이어(Balthasar Hübmaier)는 루터와 츠빙글리보다 앞서 권징을 강조하였다. 그의 책 『기독교입문』(*A Christian Instruction*)에서 기독교인의 기초가 무엇이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마태복음 18장의 권징을 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의 일원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세례의 맹세와 함께, 교회의 권징 아래에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주장하였다.²⁶⁾

1526년 초기 휘브마이어는 마태복음 18장의 과문(the ban)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무리 세례와 성만찬을 베풀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교회의 도덕적 개혁 없이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여 성인세례조차도 진정한 권징과 출교가 수반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이 없는 곳에는 자발적인 신자들의 세례에 기초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어렵다고 보았다.²⁷⁾ 그래서 1526년에 휘브마이어는 권징을 교회의 표지에 넣게 되었다.²⁸⁾ 그는 가시적 교회의 표지로 3가지를 강조하였는데 첫째는 교인으로서의 자격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생, 둘째는 그 중생에 근거하여 베푸는 세례,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자들의 행동과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는 권징(훈련)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재세례파는 구원의 목적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²⁹⁾ 그리스

25) 이양호, “칼빈파의 제네바와 재세례파의 후터 공동체의 이상,” 『기독교사상』 (1989. 5), 105.

26) Kenneth R. Davis, “No discipline No Church: An Anabaptist Contribu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Sixteenth Century Journal XIII*, no 4 (Winter 1982), 46.

27) 위의 책, 47-48.

28) Timothy E. Fulop, “The Third Mark of the Church? - Church Discipline in the Reformed and Anabaptist Reformations,” *The Journal of Religious History*, vol 19, no.1. (June 1995), 27-28.

29) William R. Estep, *The Anabaptist Story*, 정수영 역, 『재침례교도의 역사』

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신들의 죄의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즉 모든 크리스천들은 죄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그들만의 공동체와 권징이 필요했고 그들의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외견상 거룩한 속죄의 공동체를 목표로 하였다.³⁰⁾

재세례파는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한 권징에 대한 자발적인 서약과 믿는 자의 세례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공동체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회복과 참된 신앙인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권징과 믿는 자의 세례(Believer's Baptism; 성인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재세례파는 유아세례를 거부했는데 유아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회개도 할 수 없으며 믿음을 실천할 수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츠빙글리가 구약의 할례와, 바울사도가 자녀들의 거룩하다(고린도전서 7:14)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고, 재세례만을 주장하며 대담한 시위를 감행하였다.³²⁾

이러한 갈등구조 속에서 재세례파는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더 강력한 권징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별 짓게 하고 생활을 보존하고자 파문(The ban)을 사용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에 대하여 질책 받았다. 그러나 파문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파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강조되었다.³³⁾

재세례파는 교회와 정부를 별개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권징을 교회가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세속정부와 구별된 공동체로 살기위하여 강력한 권징을 수행하였다. 재세례파에 의하면 정부는 세상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정부는 상호 무관하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죄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인은 공직을 맡아서도 안 되고, 교회의 권징에 정부가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칼뱅은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권위를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가 정부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서울: 요단출판사, 1986), 278-80.

30) Kenneth. R. Davis, "No discipline. No Church," 43-44.

31) 위의 책, 45.

32) Phil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95.

33) William R. Estep, 『재침례교도의 역사』, 281.

정부가 교회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는 사상을 다 거부하고, 이 두 기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칼뱅은 정부와 교회의 기능을 구별하고, 권위를 동등하게 본다는 점에서 재세례파와 다르며 출교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재세례파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³⁴⁾ 재세례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교회의 본질상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정결케 되며 자유롭게 된다고 하였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었고 이것은 국교분리의 원칙을 최초로 주장한 것이 되었다.³⁵⁾

칼뱅의 권징이 재세례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권징을 제3의 표지로 볼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칼뱅은 권징을 교회의 세 번째 표지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칼뱅주의자들과 재세례파에서는 권징을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 인정하였다. 권징은 교회공동체와 잘 어울리며 이신칭의와 성화 그리고 교회와 정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주제가 되었다. 권징에 있어서 칼뱅의 견해는 루터파와 재세례파 사이의 중도 위치를 견고하고,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츠빙글리와 재세례파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³⁶⁾

그러므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고 이것은 재세례파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칼뱅의 신정도시 제네바는, 재세례파의 후터(Jacob Hutter)³⁷⁾ 공동체와 뮌스터 재세례파공동체(Münster Anabaptist)등 재세례파와 상호관련이 깊다. 후터 공동체는 후에 모라비아 안 공동체(Moravian community)의 모체가 되었는데 그들은 강력한 종교적 권징을 행하는 특징이 있었고, 뮌스터 재세례파는 존 마티스(John Matthijs)가 이끌었는데 1533년과 1555년 사이에 거룩한 사람들의 왕국을 설립하려고 하였다. 평화주의적인

34) 오덕교, 『장로교회사』, 87

35) William R. Estep, 『재침례교도의 역사』, 293.

36) Timothy E. Fulop, "The Third Mark of the Church?," 27.

37) 후터(Jacob Hutter, ?-1536)는 재세례파의 분파지도자로서 원시공산공동체를 건설하였다. 박해를 피해 현재 체코의 메렌(모라비아)과 티롤 지방에 피난처를 찾은 재세례파 분파이다. 후터 형제단은 예루살렘의 원시교회를 본떠 재산의 공유를 강조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후터는 1536년 2월에 이단자로 몰려 고문을 받은 후 화형 당하였고 그의 이름을 딴 이 후터공동체는 아직도 미국과 캐나다 서부지역들에 주로 남아 있으며, 회원은 2만 명가량 있다. 칼뱅은 후터의 죽음 이후 후터공동체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제네바시 공동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세례파로써 강력한 권징을 행했던 공동체는 메노 시몬스(Menno Simons)가 이끌었던 메노나이트(The Mennonites)였으며, 스위스 형제단을 따라 세상과의 분리된 공동체로서 강력한 평화주의와 엄격한 권징을 매우 강조하였다.³⁸⁾

특히 메노 시몬스는 1541년 그의 책 『교회의 권징에 관한 권면』(*A Kind Admonition on Church Discipline*)에서 권징과 출교를 가르쳤다. 메노는 주의 만찬과 교제에서 제외시킬 때는 반드시 사랑이 밀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도적 선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출교에 해당하는 죄는 무력사용, 일부다처, 나체와 같은 수치스런 행동, 순결치 못한 생활, 세속적 설교가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 유아세례, 속된 성찬식, 술 취함, 탐욕, 우상숭배, 간음, 좋지 않은 대화 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출교를 일시적 조치의 치료책으로 보았고 형제들은 진실로 회개한 사람과 화목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출교를 행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의 경건한 생활과 교리의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재세례파들에게 생의 근본적 동기는 사랑이었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제와 훈련의 근거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재세례파는 강력한 권징을 시행하였다.³⁹⁾

16세기 당시 재세례파의 급진적 종교개혁은 교황주의의 오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참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속정부로부터 벗어나고 구별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⁴⁰⁾ 영국의 분리주의자들 가운데 헨리 베로우(Henry Barrow)는 출교 없이는 진정한 교회는 없다고 보고, 교회에 의하여 행사된 규율은 진정한 교회의 존립을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가 시행하는 규율에 권위가 없으면 사역과 교제도 없으며, 신앙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세례파는 강력한 분리주의로 나갔다.⁴¹⁾

칼뱅은 재세례파의 권징과 후터공동체, 메노주의자들의 권징이 과격하고 말씀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칼뱅은 옛날 노바티아누스파(Novatianists)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었는데 지금은 특정한 재세례파(Anabaptists)가 그와 똑같은 환상에 빠져 있고 재세례파의 권징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재세례파는 하

38) Williem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tr. William J. Heynen. (Ewrdmans Publishing Co., 1981), 3.

39) William R. Estep, 『재침례교도의 역사』, 284-85.

40) Williem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5.

41) Paul D. L. Avis,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80-81.

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순결하고도 천사 같고, 육체의 더러움에 전혀 물 들지 않은 새로운 삶 속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세례를 받은 후에 누군가가 타락하여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을 오로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에 맡겨 버리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요컨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범죄 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에 대한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들은 처음 거듭날 때 받은 용서 이외에 다른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들이 얼마나 미친 의도를 갖고서 자기들을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으로 이끄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⁴²⁾ 결국 칼뱅은 재세례파의 너무 강하고 급진적이며, 분리주의로 나가버리는 권징에 대하여 크게 반대하였다.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무시하는 재세례파의 과격한 분리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였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완전히 면했다고 여기며, 혹시 잘못하여 범죄 할 경우 완전히 은혜에서 제외시켜 버리다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가? 과연 누구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아닌가?(마 18:21-22)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도록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주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셨단 말인가? 그러므로 주님은 한두 번 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나 용서하시는 것이다.⁴³⁾

칼뱅은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마태복음 18:18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적용하여, 권징이 용서와 화해, 회복과 성숙을 위한 훈련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재세례파와 같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권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열쇠를 가진 성도들의 4중직 가운데서 대표들로 선택된 치리기구를 통하여 성도들을 권징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B. 『기독교강요』와 권징

1. 1530년대 시대적 배경

4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38-39.

43) 위의 책, 39.

1534년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거세지자 1535년 프랑스 정부는 종교개혁자들을 수없이 박해하여 순교의 제물로 삼았다. 잔인한 박해소식을 들은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1536년 『기독교강요』를 바젤에서 출판하여 프랑수아1세에게 헌정하면서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였고,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운동이라고 호소하였다.⁴⁴⁾

칼뱅은 1536년 3월 『기독교강요』 초판을 낸 이후 1537년 1월 16일에는 파렐과 함께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위하여 제네바 시의회에 “제네바교회의 조직과 이 교회의 예배에 관한 신앙고백서”(Articles on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its Worship at Geneva)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 문서에서 칼뱅은 권징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 신앙고백서의 주요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베푸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성찬을 둘러싼 권징에 관한 것이었다. 칼뱅은 초기부터 권징이 성만찬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훈련과 성화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회가 권징과 치리를 훈련차원에서 엄격하게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특히 성만찬을 둘러싸고 엄격하게 권징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칼뱅의 권징은 교회 정치적인 측면보다 “율법의 제3사용”(usus legis tertius)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된 복음의 삶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하였다.⁴⁵⁾

칼뱅은 1536년 8월 파리를 떠나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를 향하던 중 한스부르크-발로와(Hanbsburg-Valois)전쟁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제네바로 우회하게 되었다. 당시 제네바는 13000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1500명의 투표권자와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의회(Big Council)와 60인 의회(the Council of sixty) 그리고 25명으로 구성된 소의회(Little Council)가 다스리고 있었다.⁴⁶⁾ 그리고 성직자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던 목사회(the Venerable Company)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힘은 갖지 못했고 교회적인 사안들 특별히 교육, 자격심사, 안수 그리고 복음을 맡을 성직자임명과 관련해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졌다. 그렇지만 목회자의 취임에 있어서는 세속정부와 회중의 동의를 필요했다.⁴⁷⁾ 이러한 도시국가제도와 정부형태는 훗날 제

44) 오덕교, 『장로교회사』, 90.

45)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270-71.

46) 위의 책, 90-91.

47) Phillip Schaff, 『스위스종교개혁』, 413.

네바를 ‘프로테스탄트의 로마’로 발전할 수 있게 하였고 칼뱅이 컨시스토리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베른(Bern)시가 파송했던 설교자 기욤 파렐(William Farel, 1489-1565)때에 제네바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예배’가 1532년부터 시작되었다. 1536년 봄부터는 한창 종교개혁이 일어나 복음적인 예배를 결의하고, 8월에는 미사를 금지시키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많은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제네바를 떠났다. 이때 칼뱅이 제네바에 도착하였고 파렐의 권유로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1536년 9월이었다. 당시 제네바 교회의 목사들은 복음적으로 설교했지만 생활개혁에는 무관심하였다. 칼뱅은 복음적 설교와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강력하게 삶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537년 7월 29일에는 파렐과 함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와 교회 권징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모든 제네바 사람들이 이 문서들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고백할 것을 요구하였다.⁴⁸⁾

1538년 1월에는 급기야 제네바 시의회는 목사들과 치리권을 놓고 갈등하다가 목회자들에게서 출교(파문)의 권한을 박탈하였다. 그래서 칼뱅과 파렐은 제네바 시의회에 단호히 맞섰고, 결국 1538년 부활절 때 성만찬 집례를 거부하였으며 4월 23일 제네바를 떠났다. 칼뱅은 3년이 채 못 되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포기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칼뱅의 처음 제네바 종교개혁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칼뱅은 제네바를 떠나 슈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영구히 살려고 그해 9월에는 시민권까지 받았다. 칼뱅은 한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베풀었다. 칼뱅은 이 성만찬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리 알리게 하여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권징을 통하여 교정하고,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기 위함이었다.⁴⁹⁾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성만찬에 바르게 참여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권징을 매우 강조하였다.

1536년 초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구원과 교회의 존재의 영광을 위하여 권징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칼뱅은 『기독교강요』 초판을 집필하면서부터 적절한 곳에서 권징을 논할 것이며, 권징이야말로 교회를 거룩하게

48) 오덕교, 『장로교회사』, 91.

49)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271-72.

지켜가고 그 목표 또한 공적인 화목(public reconciliation)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⁵⁰⁾ 그러나 1559년 최종판에 오면 이러한 관점이 더 풍성해지며 교회에 속한 “영적법정”(spiritual jurisdiction)과 교회의 “천국열쇠의 권세”(the power of the keys)안에서 권징을 더 강조하였다.⁵¹⁾

밀러(Milner)는 칼뱅의 『기독교강요』의 핵심을 질서의 회복을 위한 제도인 교회에 있다고 보고 교회론이 칼뱅 신학의 중심이라고 하였다. 그는 칼뱅 신학의 중심은 신론과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교회론이며, 『기독교강요』 제 1권에서 3권까지의 모든 논의는 제 4권의 교회론을 위한 서론이라고 볼 정도로 교회론을 강조하였다.⁵²⁾ 베르코우워(J. C. Berkouwer)가 “은혜는 권징의 기원이다. 따라서 은혜는 구원의 관점에서 권징을 충만하게 한다. 권징은 결코 폐쇄된 재판이 될 수 없다”⁵³⁾고 말했듯이 권징이야말로 교회를 더 은혜롭게 하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리스도안에 머물러 경건한 삶으로 성화시켜주는 훈련으로 보았다. 교회의 권위는 곧 권징을 통하여 세워지게 된다. 칼뱅은 신자들이 권징과 관련하여 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교회의 경고들을 업신여기며 그 훈계를 대적하거나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 교회를 버리고 그 통일성을 깨뜨리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⁵⁴⁾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에 매료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적으로 권징이 경건한 방법이어야 하고 그 수단이 평화적이어야 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하고 형제들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하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 그 어떤 치리의 약효도 해롭고 불필요하다고 보았다.⁵⁵⁾ 그래서 칼뱅은 적법하고 갈등 없이 약효가 잘 나타난 권징이라 할지라도 엄격주의적(rigoristic)인 정의를 사용하는데 반대하였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의하면서 키프리안(Cyprian)의 말을 따라, 할 수 있는 한 자

50) John T. McNeill,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38.

51) Richard R. De Ridder, "John Calvin's View on Discipline," 226.

52) 이양호, “신학구조,” 『최근의 칼뱅연구』, 98.

53) J. C. Berkouwer, *Studies in dogmatics: Church* (Grand Rapid: Eerdmans. 1976), 364.

5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24.

55) John T. McNeill,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1238.

비로운 교정을 해야 하고 비난과 슬픔, 또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참고 인내할 것을 포함하였다.⁵⁶⁾ 결국 칼뱅은 권징을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우리를 두시시기 위하여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었던 교회의 질서와 성화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것으로 보았다.

2. 교회의 표지와 권징

칼뱅은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조에 크게 영향을 받아 ‘보이는 교회’(가시적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불가시적 교회)로 구별하고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에 대하여 논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든지 순결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바르게 거행되는 곳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고 보았다.⁵⁷⁾

칼뱅은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로 보았다. 그런데 최근에 칼뱅신학자들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인정하거나 또는 ‘성도의 표지’에서 찾는다. 성도의 표지란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권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때 참된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6세기에 이미 바빙크를 중심으로 한 칼뱅주의자들은 권징을 포함시켜 교회의 표지로 인정하고 있다. 부처(Bucer)나 아 라스코(à Lasco)는 권징을 교회의 표지에 포함시켰다.

두메르크(Emile Doumergue)는 칼뱅의 교회 표지를 말씀, 성례, 권징 이 셋으로 이해하였다. 애비스는 철저하게 기독교론적인 입장에서 칼뱅의 권징이 다루어졌고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전이된 것으로 보면서, 칼뱅의 권징은 교회의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교회에 권징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있으면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보았다.⁵⁸⁾

칼뱅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이

56) Willem Balke, *Calvin and Anabaptist Radical*, 167-68.

57) 황정욱, “칼뱅과 오늘의 개혁교회 - 교회론을 중심으로,” 최윤배 편, 『어거스틴, 루터, 칼뱅, 오늘의 개혁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편집위원회, 2004), 125.

58) 위의 책, 156.

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참으로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칼뱅의 권징은 ‘참으로 듣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징에는 순종과 실천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루터교회에서는 멜란히톤과 그의 제자들이 교회의 제 3의 표지를 언급했다. 개정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7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믿고 순종한다는 말은 칼뱅의 ‘참으로 듣는 것’ 즉 권징과 관련되어 있다.

멜란히톤은 교회에 대한 ‘순종’을 교회의 징표로 말했었다. 또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Confessio Scotia)의 제 18조와 벨기에 신앙고백서(Confession Belgia)의 제 29조에서도 교회의 3번째 표지로 권징을 들고 있다. 그러나 권징 자체가 참된 교회의 독자적인 표지는 아니었다.⁵⁹⁾ 권징이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는 아니지만, 참된 교회에는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칼뱅에게 있어서 권징은 교회조직에 속한 것으로써 성화의 수단이요, 교육과 훈련, 죄에 대한 방어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권징은 교회의 표지에 버금가는 것으로써 참된 교회의 거룩함과 말씀과 성례의 거룩한 예전을 지켜가고 보존해가며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강요』 1536년 초판과 1539년 둘째 판에서부터 한결같이 권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1543년 『기독교강요』 3판에서는 더욱더 교회의 권징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야만 함을 강조하였다. 권징은 전체 회중에게 시행되어야 하며 법적인 의미에서 또는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교회는 세상정부와 구별되는 영적인 정부로써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권징을 통하여 교회의 사법적 역할이 가능하고 영적인 정부를 보존하는 틀이 되었다는 것이다.⁶⁰⁾ 칼뱅은 사회 없이 가정도 온전하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권징 없이 최상의 상태에 있기 어렵다고 보았다. 권징은 더더욱 교회에 필요하며 교회의 상태는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권징에 의해 교회의 기본적인 역할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론을 지켜가는 것이 교회의 정신(soul)이었다면, 권징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신경과 근육(sinews) 같은 것으로 보았다.⁶¹⁾ 이러한 관점에서 칼뱅의 권징은 매우 중요하였고, 교회의 표지로 볼 수 있을

59) Otto Weber, 『칼뱅의 교회관』, 60-61.

60) Willem Balke, *Calvin and Anabaptist Radical*, 165.

61) John T. McNeill,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1229-30.

만큼 중요한 주제였다. 결국 칼뱅의 권징은 개혁신교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형기는 개혁신교회의 4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혁신교회의 특징이란 대체로 첫째 설교된 말씀과 더불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다. 둘째 목회와 훈련(권징 또는 치리)으로 특징 지워지는 보이는 교회, 셋째 로마 가톨릭 예배의식에서 해방된 간단한 예배의식, 넷째 국가와 윤리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등이다.⁶²⁾

3. 『기독교강요』와 권징

칼뱅(John Calvin, 1509-1564)은 프랑스 누아용 출신으로 27세 때부터 쓰기 시작한 『기독교강요』(*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는 ‘기독교의 기본교리이며 경건한 삶의 총화와 구원론의 총화’로써 경건한 삶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칼뱅은 자신의 신앙고백을 복음의 교리와 주제들로 체계화하여 프랑스 왕에게 헌정하였다. 1534년부터 1535년까지 복음주의자들을 핍박했던 프랑수아 1세(Francis I)에게 신학을 변호하였다.⁶³⁾ 칼뱅은 『기독교강요』를 쓰는 목적을 두 가지로 언급하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게 함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준비하는 일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것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⁶⁴⁾

권징과 관련하여 칼뱅은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독교강요』 초판은 최종판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하다. 초판의 경우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 신앙(사도신경), 기도, 성례전, 거짓성례전, 기독교자의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 칼뱅의 『기독교강요』 초판에는 권징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는 대신 출교에 대하여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권징에 대한 칼뱅의 견해는 1536년 초판과 1559년 최종판 사이에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진보하며 확대되었다. 칼뱅의 작품이 빠르게 거듭 될수록 권징의 개념도 더 폭넓게 다루어졌는데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큰 틀에서 권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⁶⁵⁾

62)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266.

63) 위의 책, 263.

64) 한철하, “신학방법: 칼빈의 과학적 신학방법,” 한국칼빈학회, 『최근의 칼빈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81.

칼뱅은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부터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권징을 비롯한 방대한 신학적 주제들을 발전시켜왔다. 1536년 판 『기독교강요』는 6장, 1539년 판은 17장, 1543년 판은 21장, 1559년 최종 결정판은 무려 80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량의 증가는 칼뱅이 새로운 주제들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칼뱅의 초기 신학적 주제들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였기 때문이다.⁶⁶⁾ 칼뱅의 『기독교강요』 최종판은 초판에 비하여 권징에 대해 더 많이 할애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교회의 거룩함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강조하면서 권징을 발전시켜 나갔다.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는 경건이란 단어가 180회 이상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칼뱅이 권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성화의 삶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칼뱅의 권징은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을 넘어 죄와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과 성화의 문제로 다루었다. 그래서 칼뱅과 개혁교회의 전통은 권징(discipline)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루터가 이신칭의에 머무르는 경향에 반하여 개혁교회는 성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율법의 제3 사용”(usus legis tertius)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루터의 경우는 이 치리의 측면이 너무 약하고 로마 가톨릭의 경우는 너무 강하게 진행되어 왔었다.⁶⁷⁾

그동안 로마 가톨릭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의 생활태도를 정죄할 뿐이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교정하지 않을 경우 교회는 그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다. 로마가톨릭의 권징이 두렵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징은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까닭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악취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도들이 나쁜 무리들에 의하여 부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범죄 한 자들을 고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징은 교회에서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⁶⁸⁾

65) Richard R. De Ridder, "John Calvin's View on Discipline," 224.

66)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291.

67) 위의 책, 393.

68) 위의 책, 84.

a. 권징의 성서적 배경

칼뱅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예로 들어 교회전체가 오염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두 교회에는 온갖 종류의 죄가 만연했는데 그것도 가벼운 오류들이 아니고 끔찍한 죄들이었다. 도덕적인 부패만이 아니라 교리적인 부패도 있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음란, 소송, 성적부도덕, 결혼, 우상, 예배질서, 부활 등의 문제가 있었고, 헬라 철학의 발달로 고린도교회에는 격한 논쟁이 그들의 탐욕과 함께 불일 듯 일어났으며 온갖 일들이 무례하고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칼뱅은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교회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안에 성례사역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사도바울의 목회서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고린도에 내려간 디모데와 디도의 목회적 권면(고전16:10; 고후7:13, 8:16)의 말씀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⁶⁹⁾ 그러므로 목회적 권면(말씀)과 권징은 교회를 보존해가고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도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교회와 고린도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게 하였다.

권징이 교회를 보존하고 성도들의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준다고 할 때 칼뱅은 누구보다도 목회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목사들이 언제나 면밀하게 살피지를 않고 때때로 정도 이상으로 관용을 베풀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 엄정하게 그 일을 시행하지 못할 때 결국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생긴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경건한 사람들이 악인과 친하게 지내는 모든 관계를 금지 하면서 악인들을 미워하고 교회공동체와 교제를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⁷⁰⁾ 이것은 권징의 목적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권징이 공동체화의 분리나 단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을 전제로 한 훈련에 있음을 알려준다.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르며 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경건한 자세와 방식을 생각할 때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엡 4:3)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의 방법으로 책벌을 가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큰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여 결코 치료의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의 형제들의 악행을 더욱 따뜻한 보살핌으로 교정하고

6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28-29.

70) 위의 책, 30.

그러는 가운데 신실한 사랑과 평화의 연합을 보존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⁷¹⁾

칼뱅은 권징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줄을 든든히 하고 성도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며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세우는 훈련과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칼뱅은 제네바시를 목회하면서 교회의 권징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정립하여 제네바를 모범적인 개신교 도시로 탈바꿈시켰으며 신정국가로 발전시켰다.

칼뱅의 권징을 이해하다보면 장로제도가 생긴 배경도 알 수 있는데 장로들은 성도들의 삶을 훈련하고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제네바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칼뱅은 장로들을 선출하여 제네바시의 각 행정구역에 배치하여 교인들의 생활을 감독하게 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목사에게 보고하여 형제로서 권면하도록 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심각하고 잔혹하게 역사할 때는 (고후 11:14) 권징자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⁷²⁾ 그러나 칼뱅은 권징절차에 있어서만큼은 성경말씀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만약 교인들 중에 누가 빠뜨어진 길로 나갈 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교정이 안 되면 교회 회중 앞으로 나와 죄를 고백하게 하며, 그래도 교정이 안 되면 제네바시 의회로 넘겨졌고 제네바시 의회로 넘겨진 후에도 교정될 수 없는 사람은 출교시켜 파문키로 하였다. 그런데 파문당한 사람도 계속해서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었으나 성찬은 받을 수 없었으며 참으로 회개할 때 다시 수찬을 받을 수 있었다.⁷³⁾ 그렇다면 칼뱅의 출교와 파문 개념 또한 중세 로마 가톨릭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뱅의 출교와 파문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시적 분리였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계속 초대하여 회개의 정확한 표시가 나타나게 함으로 출교에서 해벌되도록 힘썼다.

그러므로 칼뱅은 권징이야말로 교회를 더욱 하나로 묶고 질서와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유지시키는데 최고 좋은 것이며, 권징이 약한 교회는 결국 흩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권징을 통하여 교리들을 지키고 훈련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뻗어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뱅이 권징을 강조하지만 권징이 무서운 심판과 종교재판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⁷⁴⁾

71) Augustine, "Against the letter of Parmenianus," III i.1에서 재인용.

72) Willem Balke, *Calvin and Anabaptist Radical*, 168.

73)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70.

83) Willem Balke, *Calvin and Anabaptist Radical*, 166.

권징의 강력한 힘은 불쏘시개(lighter)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재(chastisement)의 용어이기 때문에 온화함과 자애로움(fatherly)이면 충분하고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교정의 아픔이라기보다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위한 회개와 훈련이어야 한다.⁷⁵⁾

따라서 칼뱅은 권징의 온화함(moderation)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칼뱅이 재세례파의 분리주의 공동체로 빠지지 않게 하였고, 칼뱅을 완벽주의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반대답변이기도 하였다. 물론 그리스도안에서의 교회는 얼룩이나 주름이 없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의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재림하실 때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무엇이든지 그분이 제거할 것이라고 보았다.⁷⁶⁾ 따라서 칼뱅은 권징 때문에 교회공동체가 분리주의 나가서도 안 되며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개혁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칼뱅에게 있어서 권징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교회를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주권 하에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 가는 것으로 권징을 이해하였다.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아래에 있는 권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 하여 -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수단들을 더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것이다.⁷⁷⁾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권위를 높이 기리시므로 교회의 권위가 침해를 받으면 주님 자신의 권위가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교회의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권징은 교회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훈련하며 보존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으로 이해되었다.⁷⁸⁾

75) John T. McNeill,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1234.

76) Willem Balke, *Calvin and Anabaptist Radical*, 166-67.

7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9.

78) 위의 책, 24.

b. 권징의 필요성

칼뱅과 개혁신교회의 전통은 권징과 치리를 강조한다. 그 이유는 루터가 이 신칭의에 머무르는 경향에 비하여 개혁신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생활, 즉 “율법의 제 3 사용”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루터의 경우는 권징과 치리의 측면이 너무 약하고, 로마 가톨릭의 경우는 너무 강하고 무서운 종교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⁷⁹⁾ 칼뱅은 루터와 로마가톨릭의 양극단을 피하여 통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권징을 이해하였다.

칼뱅은 가정의 질서가 사회에서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교회의 치리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의 영혼이라면, 교회의 치리는 신경과 같아서 교회의 각 지체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치리 제도는 “말의 굴레”와 같아서 잘못된 자들은 어거하고 길들이며, “아버지의 회초리”와도 같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타락한 사람들을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책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치리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설교와 찬고와 교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의도가 있는 것과 같았다.⁸⁰⁾ 그러므로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잘 보존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효과적인 보존과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항상 하나로 묶여져서 세상 속에서 말씀과 삶,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권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⁸¹⁾

칼뱅은 교회가 혼동되고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으며 스스로가 그런 사악한 분리를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권징을 제거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해벌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와해시키고 있는 셈이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억제하고 누그러뜨리는 고삐와도 같으며 또한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마음

79)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472

80) 위의 책, 472-73.

81) R. N. Caswell, *Calvin's View of Ecclesiastical Discipline in John Calvin*, ed. G. E. Duffield, (Appleford, Berks: Sutton Courtenay Press, 1966), 212.

을 불러일으키는 박차와 같고, 때로는 좀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채찍질하는 아버지의 회초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끔찍한 위험이 교회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를 치유하는 일은 절대적인 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유일한 치유의 방식이었고, 또한 역사적으로 경건한 자들 사이에 항상 적용되어 온 것이었다. 칼뱅은 미친 심령들이 유일한 구원의 닻을 교회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고에 대해서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⁸²⁾ 결국 칼뱅은 권징의 필요성을 교회론과 목회적 차원에서 매우 강하게 느꼈고, 권징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c. 권징의 목적

1530년대의 교의학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설교하고, 성례전이 바르게 거행될 때 시행될 때 참된 교회로 인식하였다. 칼뱅은 말씀과 성례전을 교회의 표지와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권징은 말씀과 성례전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오토 베버(Otto Weber)에 따르면 칼뱅의 권징은 말씀과 성례에 속한다고 보았다.⁸³⁾

그러므로 권징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데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현재의 거룩함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장차 종말을 향해서 전진해간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권징이 종말론적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기 위한 보조 수단이며, 현재적으로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느끼면서, 이것을 방지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의무적인 조치와도 같은 것이었다.⁸⁴⁾ 따라서 칼뱅의 권징은 목회적 치유가 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는 권징을 통해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가려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회의적이었으며 그것은

8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272-73.

83) Otto Weber, 『칼뱅 교회관』, 60-61.

84) 황정욱, “칼뱅과 오늘의 개혁교회,” 138-39.

권징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칼뱅은 권징을 예정론 차원에서 구별의 의미보다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참으로 훈련하고 교육하여 성화시키는 수단으로 보았다.⁸⁵⁾ 그래서 칼뱅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권징은 엄중하게 시행하되 “은유한 심령”(갈 6:1)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권징은 징계를 받는 사람이 근심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후 2:7)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치유하려는 의도가 오히려 파멸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⁸⁶⁾ 권징은 원래 목적에 맞도록 죄인들에게 알맞은 정도의 책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베틀즈(Ford Lewis Battles)는 1559년 『기독교강요』 최종판을 분석하여 권징의 목적으로 세 가지를 정리 하였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크리스천이라 불릴 수 없는 타락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합당치 않은 사람”(4.12.5)에게 떡과 즙을 주는 것은 주님 몸을 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아서 이들에게 수찬정지를 해야만 한다. 둘째는 현재 악한 자들의 집단에 의해 부패하지 않고 선함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5:6-11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 중 악한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온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므로 이때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죄인들이 부끄러움을 이기고 그들에게 회개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⁸⁷⁾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살후 3:14)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전 5:5)고 하면서, 회개를 목적으로 잠정적 처벌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치리의 의도와 목적은 일반법이해나 사회윤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⁸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징의 목적이 참된 교회를 보전하고 성도들에게 회개와 치유의 기회,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심판과 정죄, 단절과 추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결국 칼뱅은 교회를 향한 목회적 가슴(pastoral heart)을 가지고 권징을 시행할 때 죄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며, 성화의 삶으로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85) Otto Weber, 『칼뱅 교회관』, 49.

8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279.

87) Richard R. De Ridder, "John Calvin's View on Discipline," 227.

88) 이형기, 『기독교강요 요약』, 394.

칼뱅은 권징의 목적을 일반 사회법적인 이해나 사회 윤리에 근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주권에 근거하였다. 이와 같이 칼뱅은 권징의 목적을 징계가 아닌 교정과, 책벌이 아닌 예방과, 분리가 아닌 화평을 강조하여 율법적용이 아닌 성화의 적용으로 이해하였다.⁸⁹⁾ 이런 점에서 칼뱅은 고대 사람들의 지나친 가혹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고대의 권징은 엄숙한 회개를 부과하고 성찬 참여권을 박탈하면서 때로는 7년, 때로는 4년, 때로는 3년, 때로는 평생토록 그런 형벌을 부과하였으니 크나큰 외식이나 혹은 처절한 절망 이외에 무슨 결과가 있었겠는가 하고 반문하면서 이런 일은 유익도 없고 이성적으로도 합당치 못한 처사였다고 비판하였다.⁹⁰⁾

칼뱅은 출교의 경우에서도 권징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출교의 경우에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악한 사례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다가 그들을 모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있었다.⁹¹⁾ 그러므로 칼뱅은 치리의 의도와 목적이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칼뱅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 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고후 2:7)는 말씀을 인용하였다.

키프리아누스(Cyprian)는 일찍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했는데 칼뱅이 이 말을 인용하여 교회공동체가 분리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한 권징의 목적이 분리주의로 가지 않도록 하는데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 교회의 하나 됨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가야 할 법으로 이해했으며, 교회는 “우주적”(Katholish)이기에 그리스도가 갈라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둘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분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권징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였다.⁹²⁾ 그러므로 칼뱅의 권징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우주적인 교회공동체로 하나 됨

89) 이형기, 『종교개혁 사상사』, 473.

90) 위의 책, 280.

9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279-80.

92)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196.

을 지향하는 수단이었다.

칼뱅은 고대 교회의 권징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던 키프리아누스와 크리소스토무스를 따르며, 도나투스주의자들을 매우 온유하게 대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칼뱅은 권징에 대한 목적을 키프리아누스의 말에서 찾았는데 다음과 같다.

모두들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 형제를 함께 모으고자 하는 강한 열심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지른 모든 세세한 과오들을 법적으로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 회개하고 돌아와 겸손하고도 단순한 보속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 충만한 사랑으로 껴안을 것입니다.⁹³⁾

칼뱅은 범죄에 대하여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족하게 되면 회개하는 당사자를 안수하여 은혜 가운데로 영접하였는데,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가리켜 키프리아누스는 흔히 ‘평화’라고 부른다고 하였다.⁹⁴⁾ 결국 칼뱅의 권징은 분열과 심판이 아닌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충만히 나타났고 그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이 쏟아 부어졌으며(딤후 1:9;3:4; 딤후 1:9)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음을(고후 5:18 이하)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하늘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이 끊어졌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⁹⁵⁾ 이것이 권징에 대한 칼뱅의 이해였다.

일찍이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보다 좀더 강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신데 어째서 그의 사제가 그렇게 가혹하게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인가?”⁹⁶⁾라고 했다. 칼뱅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권징은 정도에 알맞게 온유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결코 치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과멸에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어야 했다. 따라서 권징은 하나님의 택정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들을 교회와 그리스도로부터 일시적인 분리였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훈련하

9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280.

94) 위의 책, 278.

95) 위의 책, 41-42.

96) 위의 책, 281.

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할 경우에도 이들을 주님께 맡기고 밝은 앞날이 오기를 기도할 뿐인데, 최후의 저주와 죽음의 심판은 주님 손에 달렸기 때문이었다.⁹⁷⁾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주의자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에 주목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종교적 강압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대한 관용을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하였다. 죄인들이 처벌이나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가르침에 때문에 인도 되어야 한다. 수치와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하며, 범 죄는 처벌해야 하지만 인간은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⁹⁸⁾ 이것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며, 자신 또한 어머니 모니카에게 돌아왔던 것을 염두 해 두고 언급한 사랑의 치리였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주의자들의 분파에서 돌아온 감독들에게 감독직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것도 그들이 회개한 직후에 그렇게 행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권징의 목적이 결코 분리가 아닌 일치와 평화,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선택하신 공동체가 성경 말씀대로 권징이 바르게 실천되며 참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였다. 권징은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설교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도록 하며 사랑과 평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시켜가는 목양적 기능에서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었다.

d. 권징의 주체

칼뱅의 권징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권징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었다. 교회와 정부 어느 쪽에서 권징의 주체가 되느냐의 문제는 칼뱅의 종교개혁을 좌지우지할 만큼 심각하였다. 『기독교강요』 초판이 나왔던 1536년 8월까지만 해도 칼뱅은 교회의 치리권이 주교(감독)가 아닌 ‘교회’에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치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⁹⁹⁾ 그러나 1541년 제네바 교회법

97) 이형기, 『기독교강요 요약』, 396.

98) 김영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의 수단 이해: 도나투스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형기교수 은퇴논문집』 (서울: 이형기교수은퇴 논문편집위원회, 2004), 117-18.

이 시행되면서 교회의 권세는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교회의 치리권이 컨시스토리에 주어졌다.

제네바는 의회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컨시스토리에서도 잘 나타나게 되었다. 칼뱅은 키프리아누스의 “나는 감독직 시초부터 성직자들의 조언과 신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¹⁰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절차는 교회의 치리권이 장로회의를 통하여 시행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루터의 만인제사장사상에서의 특수 교역직에 근거하고 있다. 칼뱅은 암브로시우스가 오직 성직자들만 교회의 재판을 담당했던 것을 비판한 것에 동의하였다.

옛날의 회당과 그 이후의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었고 이들의 권고가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전례가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다. 어떤 소홀함 때문인지는 나도 모르나 어찌면 학식 있는 자들의 게으름, 아니 자기들만이 중요한 자들임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 교만 때문일 것이다.¹⁰¹⁾

결국 칼뱅의 주장에 의해, 1541년 11월 20일 제네바 『교회법령』(L'ordonnances ecclesiastiques)이 시에서 법으로 통과됨으로써 컨시스토리(Consistoire)만이 수관정지와 출교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확정하게 되었다.¹⁰²⁾

칼뱅은 교회 전체에 주어진 권세를 한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 때는 만용의 길로 나갈 수 있고, 또한 교회에 속한 것을 빼앗아 스스로 차지하고 그리스도의 영계서 친히 제정하신 컨시스토리를 억누르고 해체시킨다면 지극히 사악한 처사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강요』 4권, 3장에서 교회의 사역자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여기에서는 권징의 주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로 첫째로는 사도요, 그 다음으로는 선지자요, 셋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로는 목사요, 마지막으로 교사다.(엡 4:11) 권징과 관계된 직분은 사도들과 목사이다.¹⁰³⁾

사도들이란 세상을 반역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의 상태로

99) 송인설, “장로 직분의 역사적 발전과 신학적 전망,” 한국교회사학회,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9집, 2006), 220.

100) Cyprian, *Letter*, x vi.2; x vi i 2; x vi 4에서 재인용.

101) Ambrosiaster, *Commentary on 1Timothy* 에서 재인용.

102)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288-89.

10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64.

돌이켜 이끌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혹은 처음 교회를 세운 자들로서 그 기초를 온 세상에 세운 자들이다.(고전 3:10) 그 다음으로 목사들과 교사들을 매우 중요한 직분으로 보고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목사와 교사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교사들은 권징이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경고나 권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성경해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신자들 가운데 교리를 온전하고도 순결하게 지킬 책임을 지지만, 목사의 직분에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¹⁰⁴⁾

특히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여 경건하게 살게 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며, 권징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교회의 파수꾼으로 지명 받은 자들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공언하신다. 곧 그들의 소홀함으로 아무라도 무지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피를 그들에게서 찾을 것이다(겔 3:17-18)는 말씀으로 책임감을 부여하였다.¹⁰⁵⁾ 다스리는 자들(고전 12:28)은 선택하여 세운 장로들로서 감독들과 더불어 도덕적인 과실들을 책별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각 교회마다 처음부터 경건하고 진지하며,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 택한 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장로회(a senate)가 있어서 과오들을 교정하는 일을 책임 맡았다.¹⁰⁶⁾ 이와 같이 칼뱅은 권징의 권위와 권징을 시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권위를 중요시 하면서, 신중하고 엄격한 권징을 처음부터 예고하였다.

칼뱅은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제롬(Jerome)의 견해를 따른다. 제롬은 교회의 직분들을 다섯 자리를 설정하면서 감독(bishops), 장로(presbyters), 집사(deacons), 신자(believers), 예비신자(catechumens)등을 열거하였다. 이 중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을 그들은 “장로”라 불렀다. 각 도시에서 이 장로들이 그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특별히 “감독”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제롬은 디도서 주석에서 감독과 장로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마귀가 격동시켜서 신앙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은 장로들의 전체 회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교회 전통을 칼뱅은 따랐다. 그러므로 각 도시마다 목사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장로회의(a college of presbyters)를 두었다. 그들은 모두 바울이 감독들에게 말한 대로(딤후 1:9) 사람들 가

104) 위의 책, 65.

105) 위의 책, 67.

106) 위의 책, 69.

운데서 가르침과 권면과 교정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자기들 이후에도 계승자들이 거룩한 싸움에 헌신하도록 가르쳐야 했다.¹⁰⁷⁾

한편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개혁교회의 특징은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임을 밝히고 모두가 복음의 말씀 앞에서 평등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직자 스스로에 대한 권징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실제로 칼뱅은 성직자에 대한 권징도 강조하였다. 고대의 감독들은 성직자가 사냥, 도박, 또는 주연(酒煙)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고, 고리대금이나 상업행위에 참여해서도 안 되며, 성직자는 음란한 무도회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 등을 교회법으로 규정해 놓았다.¹⁰⁸⁾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례 시찰과 교회회의가 제정되어 의무에 소홀한 자들을 훈계하고, 혹 죄 지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서 징계하도록 하였다. 혹 어느 감독이 그 휘하의 성직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심하게 대하면 하급 성직자는 교회회의에 상소할 수 있었다. 죄를 범하였을 경우 가장 극심한 형벌은 그 직분에서 해임되고 일시적으로 성찬 참여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성직자들은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주어야 했다. 사람들을 향해서라기보다 그들 자신을 향해서 훨씬 더 엄격하였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더 엄격한 권징을 시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들을 덜 용납하는 것이 적절한 일로 생각하였다.¹⁰⁹⁾

그러므로 권징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군주들과 평민들, 모두가 거기에 복종하였다. 테오도시우스 황제(Theodosius: 401-450)는 테살로니가에서 저질러진 살육으로 인하여 암브로시우스에 의하여 성찬 참여권을 박탈당하고서, 왕의 모든 장식품들을 던져버리고 교회당에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공적으로 애곡하였고 탄식과 눈물로 용서를 간청하였다. 위대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을 굴욕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교회에 의하여 판단을 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¹⁰⁾

e. 권징의 절차

107) 위의 책, 79-80.

108) 위의 책, 94.

109) 위의 책, 294-95.

110) 위의 책, 278-79.

칼뱅은 사도행전 20:20, 26, 31절에서 사도바울의 목회적 의도를 해석하면서 목사들과 장로들은 물론 믿는 자들 상호간에도 형제의 잘못에 관하여 경고, 충고, 교정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절차에 있어서는 우선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두 세 사람의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권고하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교회의 법정인 “장로들의 총회”(consensus saniorum)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¹¹¹⁾ 이 장로들의 총회는 목사들의 지도 하에 평신도들의 소리를 중요하게 듣고 상담하고 권면하면서 권징을 행했던 컨시스토리(Consistory)를 의미한다. 칼뱅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일인 독재를 반대하며 동시에 단순한 회중중심의 정치체제에 반대하였다. 이것은 루터가 교회의 훈련과 치리를 목사들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지극히 가증스러운 죄들이 한동안 온 교회 전체를 사로잡고 있었는데도 바울은 그 지도자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써 그 죄들을 벗어버리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칼뱅은 권징의 과정이 저주와 책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를 벗어버리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고 권징의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¹¹²⁾ 칼뱅은 베드로의 경우처럼(갈 2:14)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질책해야 하고, 사사로운 죄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전자의 성경적 근거는 “범죄 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말씀이었고, 후자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는 말씀에 근거하였다.¹¹³⁾ 그러나 사소한 죄악이 아니라 큰 범죄에 대해서는 출교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왕과 각료들까지 구분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간음을 하는 사람, 음행한 사람, 도적질한 사람, 강도, 분쟁과 파당을 짓는 사람, 문서를 위조하는 사람, 위증하는 사람 등은 출교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¹¹⁴⁾

칼뱅은 1536년 11월에 발표된 “제네바 신앙고백”에서 출교의 권징을 이렇게 언급하였다. “출교의 권징은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좋은 목적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 있어야 할 하나의 거룩하고 유익한 것이다.”¹¹⁵⁾ 그리고 출교

111) 이형기, 『개혁교회 신학사상』, 474.

11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42.

113) 이형기, 『기독교강요 요약』, 394-95.

114) 이형기, 『개혁교회 신학사상』, 474.

115) J. K. S. Reid, “The Geneva Confession : in Calvin,” *Calvin : Theological*

에 있어서도 그 절차상의 온유함을 매우 강조하였다. 범죄 한 자들을 부드럽게 대 하여야 하고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고후 2:8) 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을 택한 백성의 숫자에서 지워버리거나 그들을 이미 버림받는 자들인 것처럼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로 인정하는 것은 적법한 일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동안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에 맡기고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에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 사람을 돌이켜 덕스러운 삶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된 교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도들도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보았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살후 3:15)는 말씀대로 권징에서 온유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육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면서 주의를 당부하였다.¹¹⁶⁾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라서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는 말씀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죄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면서도 엄중하게, 온유하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권징의 절차에 대하여 그 시기와 방법과 형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권징의 절차 하나하나가 정도에 알맞게 온유함으로 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이외에도 이런 치리 과정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진지함으로 진행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법정에서 그 일을 주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¹¹⁷⁾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15-17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Treatis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31.

11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282.

117) 위의 책, 279.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18:15-17)

칼뱅은 시간이 흐르면서 권징의 절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시도하고 이 것에 실패할 경우 몇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시도하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교회의 법정인 “장로들의 총회”에서 해결케 하였다. 칼뱅은 출교(excommunication)와 저주(anathema)를 구별하였으며, 전자는 장차 받을 죄를 경고하면서도 교정을 요하는 것이요, 후자는 완전히 파멸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치리에 의해서도 최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렇다고 평신도가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며 목사들 자신도 목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¹¹⁸⁾

칼뱅은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금식기도를 권징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었다. 금식은 권징의 책벌로써 세 가지 목적과 특히 회개의 표시로서 금식기도를 강조하였는데, 사람의 범죄는 자기 몸의 행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금식을 통하여 육체를 약하게 하고 제어하여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증거 하기 위하여 금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⁹⁾

칼뱅에게 있어서 금식은 개인이나 교회,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모두 금식하며 통회 자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며, 참회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칼뱅은 자신의 삶 또한 “검소함과 깨어있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그래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권징의 책벌로 금식과 기도가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내적인 느낌”과 “죄에 대한 증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최악에 대한 참된 통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⁰⁾ 칼뱅의 금식은 외형적 신앙이나 공로주의가 아니라, 죄에 대한 강한 단결과 결단으로 마침내 해방과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118) 이형기, 『기독교강요 요약』, 396.

119) 위의 책, 286.

120) 이형기, 『종교개혁 사상사』, 476-77.

Ⅲ. 칼뱅과 제네바 컨시스토리

A. 컨시스토리(Consistory)¹²¹⁾ 이해

1980년 이후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교회사학회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회사는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주제나 인물에 집중하여 기술되어 왔지만, 컨시스토리는 평신도들의 구체적이 삶과 제네바시, 그리고 칼뱅당시의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교회사의 연구는 컨시스토리와 같은 새로운 주제를 통하여 교회사의 다양한 이해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칼뱅의 컨시스토리 연구는 지도자 중심의 교회 역사 기술을 벗어나 제네바시의 ‘평신도의 삶’과 ‘제네바교회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대하여 이정숙은 컨시스토리 연구에 대하여 “교리나 사상만이 아닌 일상의 삶을,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삶을,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포함한 역사가 가능해진다”¹²²⁾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미국 교회사가들의¹²³⁾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컨시스토리에 관한 기록문서는 1542년부터 칼뱅이 죽은 1564년까지 기록된 것으로 현재 총 21권으로 정리되어 미터센터(Meeter Center)와 프린스턴 신학대학

121)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1541년 제네바의 『교회법령』에 의거하여 칼뱅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치리법원이었다. 칼뱅의 컨시스토리(consistory)는 우리말 번역으로 적합한 말을 찾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는 종교법정, 종교회의를 말하고 로마가톨릭에서는 추기경회의, 성공회에서는 교구사법기관의 의미로 쓰인다. 혹자는 당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 뜻과 의미가 다르다. 박경수 교수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치리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번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어(consistoire), 영어(consistory)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122)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 - 칼뱅의 신학과 목회의 접목,”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Vol. 18. 2000), 159-160.

123) 대표적인 학자로는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었던 토마스 램버트(Tomas A. Lambert), 이사벨라 와트(Isabella M. Watt), 몬터 (E. William Monter)등이 있으며, 미국 미시간 주의 칼뱅 연구 전문기관인 미터센터(Meeter Center ; 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에서 집중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기관에서 컨시스토리에 대한 불어판을 킹던과 왈레이스 맥도날드(M. Wallace McDonald)가 영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칼뱅의 컨시스토리 *The Res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Volume I : 1542-1544*, 이다.

교 도서관, 위스콘신-메디슨 대학과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대학에서 컴퓨터에 자료화되어 보관되어 오고 있다.¹²⁴⁾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은 제네바에서 반 성직주의나 간통과 이혼, 여성의 문제 등 새로운 연구를 자극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에서 나타나는 칼뱅은 제네바의 교황이나 독재자, 조직신학자라는 평가보다는 칼뱅 자신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자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였고 영혼들의 목자였다.¹²⁵⁾ 이정숙은 그의 논문,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n Consistory)에서 칼뱅의 컨시스토리 연구의 의의를 이렇게 말했다.

컨시스토리 연구는 좁게는 16세기의 평신도들의 삶을 통하여 칼뱅 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또 넓게는 16세기 이후 개신교회들의 성도의 훈련과 권징제도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 발생 가능한 개신교도들의 “도덕률 폐기론의 유혹”(antinomians temptation)을 경계하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칼뱅은 이러한 권징제도를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유익한 것들 중의 하나(one of the most profitable and salutary things which the Savior vouchsafed to his church)로서 이해했다. 칼뱅은 이러한 제도가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가장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¹²⁶⁾

따라서 컨시스토리는 로마가톨릭교회의 권징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고 있다.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제네바 교회에 대한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칼뱅의 종교개혁이 신학적 이론이 아닌 실제로 적용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1. 컨시스토리 형성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개혁교회는 점점 서쪽으로 나아갔다. 칼뱅은 츠빙글리의 개혁을 제네바에서 계속 발전시켰다. 제네바는 취리히를 이어받아 츠빙글리의 도시와 루터의 도시를 능가하였으며 “프로테스탄트의 로마”가 되어 주변 개혁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¹²⁷⁾ 칼뱅은 1536년 9월 1일부터 제

124) 박경수, “칼뱅 연구의 최근 경향,” 337.

125) 위의 책, 338.

126)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161-62.

네바 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가 교회의 치리권 문제로 제네바 시정부와 갈등하였으며, 1538년 4월 22일 제네바에서 추방당했다. 칼뱅은 추방을 당한 후에 슈트라스부르크에 가서 1541년까지 거주하였다. 슈트라스부르크 체류기간에 칼뱅의 신학과 사상은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인 부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별히 교회의 직제와, 예정론, 성례전 그리고 교회정치와 권징에 대하여 깊이 영향을 받았다.¹²⁸⁾

칼뱅이 제네바를 떠난 뒤 제네바의 추기경 사돌렛(Jacopo Sadolet)의 선동으로 제네바는 혼란 가운데 빠져들었다. 사돌렛은 제네바 시민들을 다시 로마 가톨릭교회로 회귀할 것을 촉구하였고 종교개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비난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교적,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칼뱅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다. 결국 제네바 시의회는 1540년 칼뱅과 파렐의 귀환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고, 파렐의 강권으로 칼뱅은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귀환하였다. 칼뱅은 이 때 귀환조건으로 제네바 시의회가 성문화된 『교회법령』을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개혁할 것과 제네바 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 설립을 내세웠다.¹²⁹⁾ 또 하나의 귀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치리와 권징에 대한 보장이었다. 1541년 칼뱅이 제네바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승리를 거둔 장군과 같이 제네바 정부에 항복조건을 받아내었고 교회의 치리, 권징의 문제는 제네바 종교개혁에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¹³⁰⁾

제네바에 돌아온 칼뱅은 기독교 교리가 온전하게 보장된 장로 제도를 세우는데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장로정치와 교회의 질서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는 『교회법령』(*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the church of Geneva*)을 제정하였고 이 법안은 1541년 11월 20일 모든 시민의 동의로 통과되었다. 이 문서의 특징은 칼뱅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의 목회적 경험과 부처의 영향 속에서 교회의 4가지 직제를 확립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목사의 직무가 말씀선포, 교육, 훈계, 권면, 성례전 집행 외에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로들의 직무는 시민의 행실을 감독하고 잘못된 자들을 훈계하며, 성찬식

127) Phillip Schaff, 『스위스 종교개혁』, 224.

128) 박경수, “부처와 칼뱅 : 16세기 교회일치의 옹호자들,” 한국칼뱅학회, 『칼뱅 연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172.

129) 오덕교, 『장로교회사』, 94-95.

130) Phillip Schaff, 『스위스 종교개혁』, 367.

에 앞서서 교인들의 삶을 검증하는 것이었다.¹³¹⁾

그래서 로버트 킹던은 “1536년부터 종교개혁의 정신이 공식적으로 나타났던 제네바에서 칼뱅의 주장으로 컨시스토리가 설립되었다”¹³²⁾고 하였다. 그는 칼뱅의 컨시스토리의 형성을 두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개혁교회의 교리를 수용하도록 교육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실천하고 확신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1541년에 설립된 것이라고 하였다.¹³³⁾

칼뱅은 일찍이 망명생활 시절부터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와 바젤에서 1526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오이콜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 1482-1531)의 영향을 받아 교회와 시의회 의원이 대표하는 치리기관을 만들려고 했다. 1530년 바젤의 종교개혁자 오이콜람파디우스는 마태복음 18:15-18에 근거하여 사도 시대처럼 교회 치리를 감독하기 위해 장로들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목사 4명, 시의회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으로 구성된 12인 위원회가 교회의 권징을 담당하고, 지역 교회에서는 3명의 위원회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⁴⁾ 이러한 구상은 훗날 칼뱅에게 컨시스토리를 구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종교개혁자 부처는 교회를 악으로부터 순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치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교회가 구원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도 역시 치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렇게만 되면 교회는 참으로 슈트라스부르크 시민 공동체에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¹³⁵⁾ 1538년에 그는 『참된 목회』(*Von der wahren Seelsorge*)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와 교회의 권징을 맡은 장로가 함께 목자로서 교회를 다스려야 하며,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된 협의회(collegium)를

131) 황정욱, “칼뱅과 오늘의 개혁 교회,” 138.

132)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Harvard College Printed, 1995), 1.

133) Robert M. Kingdon, “A New View of Calvin in the Light of the Resisters of the Geneva Consistory,” 21.

134) 송인설, “장로직분의 역사적 발전과 신학적 전망,” 219.

135) 최윤배, “마르틴 부처의 교회론 -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교회,” 『하나님 나라, 역사 그리고 신학』 (이형기교수 은퇴논문편찬위원회, 2004), 304-05.

구성하였다. 이러한 부처의 구상은 1538년에서 1541년까지 체류했던 칼뱅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¹³⁶⁾

칼뱅의 귀환과 『교회법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뱅은 바젤의 오이콜람과 디우스와 슈트라스부르크의 부처로부터 교회가 치리의 공동체로서 강조한 권징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1541년 제네바시의 『교회법령』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교육, 상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치리법원이었다. 그러므로 컨시스토리는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제네바의 종교개혁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칼뱅은 이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오직 성경대로 참된 교회를 보존하고 권징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훈련하며, 상담하고 교육시켜 용서와 화해의 참된 제네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2. 컨시스토리 조직

제네바의 컨시스토리 조직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18:17절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었다. 중세 로마가톨릭은 교회를 성직자 중심으로 이해하고 권징 또한 성직자 중심의 치리였다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신자로 이해함으로써 성직자와 신자들이 함께 치리에 참여하고, 권징의 권한도 몇몇 성직자가 아닌 교회 전체에 부여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칼뱅은 교회가 처음부터 치리의 권한을 부여받았고 출교의 권한 또한 교회를 정화하고 죄인들의 삶을 수정해 주는데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한으로 보았다. 칼뱅은 고린도전도 5:1절에서 출교가 장로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칼뱅이 제안한 컨시스토리는 교회의 독립적 권징기관으로, 로마 가톨릭과 같이 소수 성직자 중심의 치리를 거부하고 교회 회중의 전체가 권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¹³⁷⁾ 칼뱅은 보이는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울 성경말씀을 믿으며, 민주적이고 회중 중심의 치리기관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컨시스토리는 12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로, 총 24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회법령』에 의하면 컨시스토리에서 활동할 장로의 피택 기준은, 선하고 정직한

136) 송인설, “장로직분의 역사적 발전과 신학적 전망,” 221-22.

137)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169-70.

삶을 사는 사람들로 책망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신중성을 가진 자라야 했다.¹³⁸⁾ 의장은 4명의 행정관 중에 한 사람이 이끌었다. 이들은 제네바시의 중요한 행정관리들로 매년 선출되었다. 컨시스토리를 위해서 장로들 가운데 12명이 몇 년 동안 연속해서 선출되었다. 이들의 선출과정은 제네바시의 실제 행정조직이었던 소위원회(the small council)에서 2명을 선출하였다. 또한 외부정책을 포함하여 사건들을 다루었던 60인회(the Council of Sixty)로부터 4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상위기관이었던 200인 의회에서 6명을 선출하였다. 장로는 제네바시의 이웃들과 그 지역의 대표자들로 선택되었다.¹³⁹⁾ 선발 절차는 소의회가 후보를 선출하여 200인회에 제출하면 200인회는 이를 검토하고 적합성 유무를 확인한 후 그들을 불러 서약을 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들의 주 업무는 제네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살피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처럼 권하며, 목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함께 형제애의 권면 또는 권징을 시행하였다.¹⁴⁰⁾

칼뱅은 전체적으로 그들의 조정자(moderator)역할을 맡았다. 칼뱅의 중요한 업무는 컨시스토리 회원의 하나 됨을 위해, 평신도와 목사의 공정한 균형을 잡아가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 외에 직원 두 사람은 소환관(officer)과 서기였다. 소환관은 컨시스토리 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들을 소환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고 일하는 직원이었고, 서기는 기록을 담당하였다. 컨시스토리의 의장은 시의회에서 파견된 행정장관 중의 한 사람이 맡아 인도하였다.¹⁴¹⁾

그러므로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연합체로서 목사회보다 규모와 영향력이 컸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대변했다. 그러나 컨시스토리가 중세 로마가톨릭과 같은 종교재판소는 아니었다. 오로지 영적인 검(劍)만을 사용할 수 있었고 세속정부의 처벌들과는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세속적 처벌은 시의회에 속한 권한이었다. 컨시스토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계할 권한만

138) *Ordnances Ecclesiastiques. In Resistre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eve autemps de Calvin*, vol. I, (Geneve: librairie Droz. 1964), 2에서 재인용.

139) Robert M. Kingdon, "Calvin in Light of Geneva Consistory Resister," 22.

140)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163-64.

141) Robert M. Kingdon, "Calvin in Light of Geneva Consistory Resister," 21-22.

가지고 있었다.¹⁴²⁾

3. 컨시스토리의 활동

컨시스토리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모였는데 제네바에서 일어난 범죄나 나쁜 행실에 대하여 심리하여 공적인 질책에 해당되는 충고(remonstrance 또는 admonition)를 해 주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용서를 전제로 하였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 때 신부의 사면 선언과 유사한 심리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¹⁴³⁾ 컨시스토리 구성원들의 주 업무는 제네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살피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처럼 권면하며, 이 사실을 목사회에 보고하여 함께 형제애의 훈련 속에서 권징을 시행하였다. 장로들과 관리들은 참석했던 회기에 따라 약간의 급료를 받았다. 시에서 급료를 받는 목사들은 컨시스토리 일이 목사의 규정된 사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급료를 받지 않았다.¹⁴⁴⁾

킹던을 중심으로 한 컨시스토리 기록 문서를 연구한 결과, 칼뱅 당시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강제적이고 잔인한 종교재판소가 아니라, 신자들을 감독하여 범죄 한 사실에 대한 치리법원의 심리가 열려 판결을 하였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하는 목회상담적인 기능을 하였다. 이 점에서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중세 교회의 종교재판소와 크게 다른 것이었다. 컨시스토리에 소환되어 오는 사람들은 주로 귀족, 피난민, 원로, 전문가 등 제네바시의 주요 인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뛰어난 예술가, 여행자, 노예, 문맹인 등 특정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환된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¹⁴⁵⁾ 따라서 컨시스토리는 제네바의 거의 모든 시민들의 삶에 대하여 광범위한 훈련과 목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555년은 칼뱅의 제네바 목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컨시스토리의 출교권과 해별권이 재확정 되었고, 칼뱅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정치적 입지를 굳혔기 때문이다. 특별히 1556년은 칼뱅주의를 확장시

142) Phillip Schaff, 『스위스 종교개혁』, 414.

143) 박경수, “칼뱅 연구의 최근 경향,” 337.

144) Robert M. Kingdon, "Calvin in Light of Geneva Consistory Resister," 22.

145) 위의 책, 22.

키는 구체적인 제도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일반심방제도(*general visitation*)이다. 1556년 이전에는 제네바시의 심방은 특정집단이나, 병자, 교도소심방 정도가 다였다. 그러나 일반심방제도의 시행으로 개신교도들을 좀더 가까이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신자들을 더 자세히 살핌으로 주님의 성만찬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였으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이 더 많이 들려지도록 노력하였다.¹⁴⁶⁾ 그러므로 컨시스토리의 역할과 활동이 본격화 되었던 것은 1555년 이후였다. 왜냐하면 1555년 이후에 칼뱅이 제네바에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아갔고, 1556년에 일반심방제도가 채택되면서 성도들의 삶을 깊숙이 살핌으로 목양과 감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로버트 킹턴은 그동안의 컨시스토리 활동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특별히 역사가들이 심각한 처벌을 했던 몇 개 안되는 대형 사건들만 언급함으로써 컨시스토리의 사역을 왜곡하였다. 그들은 컨시스토리를 강력한 종교재판(*inquisitorial court*)의 한 종류로 보았지만 컨시스토리가 법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필수적인 상담 서비스 활동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¹⁴⁷⁾ 킹턴은 컨시스토리의 궁극적인 역할을 3가지로 보았는데 첫째는 청문회(*a hearing court*)적인 역할, 둘째 필수적 상담서비스(*a compulsory counseling service*)의 역할, 셋째는 교육적 기관(*an educational institution*)의 역할 등으로 보았고, 이 세 가지 역할을 위해 컨시스토리는 가장 우선적이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었다고 하였다.¹⁴⁸⁾

몬터(*William Monter*)의 연구에 의하면 칼뱅의 컨시스토리 이후 제네바시의 범죄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¹⁴⁹⁾ 실제로 1558년에 칼뱅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억제하고 사회적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사치와 무절제한 생활을 규제하는 법률을

146) 이정숙, “출교에 관한 존 칼뱅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한국칼뱅학회, 『최근의 칼뱅연구』, 325.

147) R. M. Kingdon, “Calvin in Light of the Geneva Consistory Resister,” 23. 이 부분은 중요하기에 원문을 표기 한다. “Our knowledge of the operation of the Consistory has been distorted considerably by the concentration of the past historian on a few spectacular cases of people who protested vehemently and were punished severely. They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Consistory was a kind of inquisitional court. But protests were in fact the exception. The Consistory was closer to an obligatory counseling service than to a court.”

148)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4.

149)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170.

제정하여 시행했다. 경박한 가요와 춤과 도박은 벌금형으로 규제했고, 가정의 순결을 위해 혼외관계는 체형으로 다스리는 등 결혼법으로 규제하였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한 권리를 선언했고, 남편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부인의 이혼을 인정해주었으며, 부인을 학대하는 남편은 처벌되었다. 이 외에도 남편의 심한 방탕과 7년 이상 가출한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였다. 부모들은 자녀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도록 규정하였고, 어린이들은 교회학교에서 교리문답과정을 공부하게 하였으며, 성인들은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했다. 유아나 가축을 돌봐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였다.¹⁵⁰⁾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교회법 안에서의 순수한 훈련으로 성도의 삶을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칼뱅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칼뱅주의자들은 성도의 표지에 포함시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보이는 교회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참 신자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가진다. 신자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 삶의 모범과 기준이 바로 성도의 표지이다.¹⁵¹⁾ 그러므로 성도로서 삶의 모범은 교회의 표지에 속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이 바로 권징이었다.

킹던은 컨시스토리의 공식적인 책벌의 하나였던 ‘충고’(admonition)를 시행하였는데 여기서도 컨시스토리의 공식적인 책벌의 원칙은 공식적인 화해(formal reconciliation)라고 보았다.¹⁵²⁾ 그러므로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출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화해에 있었고,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성화를 강조한 것이었다. 칼뱅이 컨시스토리의 교육적 의미를 얼마나 강조했는지에 대하여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은 루터보다 칼뱅이 신학 사상을 더 체계적으로 진술하였고, 신학 그 자체보다 교육에 더 역점을 둔 사상가이며 실천가였다고 평가하였다.¹⁵³⁾

150) 이양호, “칼빈파의 제네바와 재세례파의 후터 공동체의 이상,” 115-16.

151)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170.

152) Robert M. Kingdon, “Calvin in Light of Geneva Consistory Resister,” 22-23.

153) Robert C. Johnson, *Authority in Protestant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9), 42.

4. 컨시스토리의 목적

a.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화

칼뱅의 권징을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치리를 더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칼뱅은 이미 『기독교강요』에서 말했던 권징의 목적과 의미들을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였다. 칼뱅은 권징의 참된 의미를 성경과 고대 교부 키프리아누스, 크리소스토무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에 따라 “평화”, “온유”, “화목”에 근거하여 컨시스토리를 운영하였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컨시스토리의 모든 사역도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었다.

컨시스토리는 권징을 통해서 결코 죄인들을 파멸에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권징은 하나님의 택정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들을 교회와 그리스도로부터 일시적인 분리였다. 따라서 컨시스토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훈련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만약 어떤 신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고집할 경우에도 이들을 주님께 맡기고 밝은 앞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하며, 최후의 저주와 죽음의 심판은 주님 손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칼뱅은 컨시스토리의 목적이 바로 교육과 훈련에 있었고, 치리 그 자체보다는 해벌을 강조하였다. 칼뱅의 컨시스토리의 출발은 참된 교회의 모습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며,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발전시켜 갔다. 심지어 출교의 경우라도 회개의 징표가 있다면 출교자의 위치는 곧바로 회복되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돌아온 도나투스 주의자들을 영접하고 감독의 직분을 곧바로 회복해 준 것과 같았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후의 회개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칼뱅은 로마 가톨릭의 고백성사 대신에 스스로 교회공동체 안에서 회개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강조하였다.

칼뱅의 죄의 개념은 죄의 공공성 여부와 교회에 끼친 유해한 영향을 기준으로 파악되었다. 공공연한 죄가 자행되어 교회 전체에 분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교회에서의 본을 보이고, 비밀스런 죄가 저질렀을 때에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대로 그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¹⁵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 18:15~17)

1541년부터 1559년까지의 컨시스토리 기록은 견책, 벌금, 투옥, 처형으로 가득차있는 어두운 현상이었다. 1545년 페스트가 창궐할때는 20여명이 넘는 남여가 마법을 부리고 있다고 하여 산채로 화형에 처해졌다. 1542년부터 1546년 기간 동안에는 총 58건의 사형과 76건의 추방령이 내려졌다. 1558년과 1559년에 모든 종류의 범법 행위에 대해 무려 414건에 달하는 치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당시 전체 인구가 2만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라 할 것이다.¹⁵⁴⁾

한편 이정숙의 연구에 따르면 1555-1556년에 전체 출교자 수는 271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해별을 신청한 자는 모두 45명(16.6%)이었다. 그런데 45명 중에서 해별된 자는 모두 35명(잠정적 해별자 6명 포함)이었다. 해별을 신청한 자들 중에서는 78%가 해별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컨시스토리의 목적이 책벌에 있지 않고 해별에 있었음을 알려주며, 시간이 흐르면서 강한 책벌보다는 해별과 화목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b. 출교(Excommunication)와 회복(Restoration)

권징을 수행했던 컨시스토리에서 출교는 권징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벌이었고,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 출교에 해당하는 죄는 저주 행위, 알코올 중독, 간음, 주일날 카드놀이, 음란한 노래 부른 행위, 자살시도, 신성 모독, 마술, 다툼, 폭행 등으로 교인의 품행과 도덕적인 삶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¹⁵⁵⁾

컨시스토리를 통한 권징의 목적은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하여 목사와 장로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회합을 가지고 교회의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권징을 시행하였다.¹⁵⁶⁾ 출교를 당하는 자

154) 이정숙, “출교에 관한 존 칼뱅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한국칼빈학회, 『최근의 칼빈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14.

155) Philip Schaff, 『스위스 종교개혁』, 423-24.

156) 오덕교, 『장로교회사』, 99.

들은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과 도덕성이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출교는 사람을 벌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미래에 정죄를 받을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으로 그를 돌이켜 다시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다.¹⁵⁸⁾

그러나 칼뱅에게 있어서 교회의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권징의 과정에서 출교를 시행하였지만 권징을 통하여 거짓 교인들을 참교인들로부터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가시적 교회는 진정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권징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칼뱅은 권징의 목적이 죄인을 영원히 정죄하는 데 있을 수 없으며, 다만 현재로서 정죄된 자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¹⁵⁹⁾ 따라서 권징은 처음부터 처벌과 정죄 같은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분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칼뱅은 1537년에 발표한 『교회 조직에 관한 논제』(*Article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esglise*)에서부터 성만찬에 사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사악한 자들의 집단처럼 보임으로써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출교가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주님께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출교를 그의 교회에 말씀하셨다.(마 18:15-17)¹⁶⁰⁾ 따라서 칼뱅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학과 실천의 오용과 타락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중세후기 신학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를 교황의 출교권의 사악한 사용으로 생각하였다. 칼뱅은 출교가 교황들의 권한의 오용이 아닌, 구원자 되신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남겨주신 것으로 출교처럼 유익함이 많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매우 유익한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⁶¹⁾ 이것은 로마가톨릭과 전혀 다른 출교의 목적으로 칼뱅이 언급한 것이었다.

칼뱅의 출교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칼뱅이 영향을 많이 받은 츠빙

157) Philip Schaff, 『스위스 종교개혁』, 413.

158) 위의 책, 282.

159)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50-51.

160) 황정욱, “칼뱅과 오늘의 개혁교회,” 137.

161) 이정숙, “출교에 관한 존 칼뱅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 활동,” 309.

글리와 불링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츠빙글리의 권징에 의하면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신도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영적인 검을 사용하여 죄를 벌함으로써 기독교적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1529년 11월에 열렸던 레네크 회의(Rheneck Synod)에서는 가무, 음주 등과 같은 각종의 세속적인 유흥행위에 대해서도 교회의 출교권이 부여되었고, 정부와 의논 없이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츠빙글리는 권징 중에 성만찬 정지에 대해서, 성만찬은 원래부터 죄인들의 합당치 못한 참여로 절대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성만찬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¹⁶²⁾ 또한 츠빙글리나 불링거는 출교가 죄인을 벌하는 것이고 성만찬은 죄인을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츠빙글리의 출교신학의 영향 속에서 칼뱅은 출교가 성도의 훈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권징의 독특한 과정으로 나타났다. 출교의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모독과 불명예를 당하시지 않도록 하고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싸우고 이기게 함으로써 성화되어가며, 죄에 의해 교회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¹⁶³⁾

칼뱅에게 있어서 출교가 심각한 권징이긴 하지만 성도를 영원한 멸망과 좌절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출교를 풀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안에 있는 연합과 하나님의 공동체와의 화해를 나누도록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의 출교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정숙은 칼뱅의 출교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칼뱅의 출교는 지금의 수찬정지에 가까운 일시적 분리 또는 징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마태복음 18:15-17의 절차에 따라 권징을 시행하되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경우는 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구두 권면 또는 출교를 적용시켰다. 출교된 자들은 일차적으로 성만찬과 세례에서 제외되었으나 설교를 더 많이 듣도록 명령을 받았다.¹⁶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교자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설교와 예배에 오는 것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칼뱅은 출교 중에도 교육과 설교를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출교

162) 위의 책, 312.

163)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166.

164) 위의 책, 172-73.

가 성만찬의 제외 곧 교회 공동체와의 단절이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분리가 아닌 일시적 분리요, 미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미리 불러일으키는 훈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출교와 회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¹⁶⁵⁾

이와 같은 견해는 칼뱅의 교회론에 기인하고 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고백하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설교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권장을 통하여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은 강화된다.¹⁶⁶⁾ 그러나 칼뱅시대의 출교는 매우 심각한 처벌이어서 제네바시로부터의 추방과 배척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출교자들은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았는데, 킹던은 이렇게 말했다.

16세기 당시의 세례와 출교에 관하여 출교된 자는 세례에 참여하지 못했고, 어린아이의 후원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 동안 가문끼리 연대를 형성하여 사회, 정치 사업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교된 자는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아이의 후원자로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¹⁶⁷⁾

재세례파의 경우에는 출교된 자가 다른 신자들과 일체의 거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루터는 출교된 자들이 다른 신자들과 제한된 관계를 갖지만 시민법과 상거래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처의 경우도 출교가 성도들과의 분리를 의미하지만 당시 재세례파와 같은 전면적 분리는 아니라고 본다. 부처의 영향을 받은 칼뱅 또한 출교된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접촉을 허용하였다.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칼뱅은 죄인들과 친근하게 살고 친밀한 교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권면과 위로, 자비, 부드러움, 은혜를 베풀어야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⁶⁸⁾ 그러므로 칼뱅에게 있어서 출교는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죄에

165) Jong-Sook Lee, "Excommunication and Restoration in Calvin's Geneva, 1555-1556,"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New Jersey, 1997), 85.

166)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51.

167) Robert. M. Kingdon, "Social Control and Political Control in Calvin's Geneva," 523.

168) J. Calvin, 『기독교강요』, 2.B.28,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트, 2005), 146.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경고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출교는 회복과 훈련과 교육의 의미가 컸다.

출교권에 대한 논쟁으로 대표적인 것이 리버틴¹⁶⁹⁾과의 논쟁이었고, 제네바 시의회와도 큰 갈등이 되었다.¹⁷⁰⁾ 컨시스토리가 시의회와 겪은 가장 두드러진 갈등은 해벌(회복)권을 중심으로 생겼다. 권징과 관련하여 칼뱅은 1553년 9월에 반대세력 가운데서 리버틴 중의 한 사람인 베르델리어(Philbert Berthelier)를 수찬정지와 아울러 파문시키려 했을 때 제네바시의 소의회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1553년 11월 7일, 200인 시의회는 누구에게 출교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격론을 벌였고, 1555년 1월 24일 60인 시의회와 200인 시의회는 출교에 관한 컨시스토리의 권한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모였으며 칼뱅과 제네바 목회자들은 1541년 교회법에 근거하여 출교의 권한이 교회에 있음을 주장하여 승리하게 되었다.¹⁷¹⁾

이정숙의 연구에 의하면 1555년에 420건의 사건에서 출교건수는 77건으로 18.3%였으며, 치리를 받은 1234명중에 92명이 출교되어 7.5%였다. 1556년에는 총 730건의 사건에서 출교건수는 142건으로 19.3%였으며, 1518명 중에서 169명만이 출교되어 11.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약 80-90%는 출교외의 책벌이었으며 출교건수 19.3%와 출교자의 수는 11.7%로써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출교의 이유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면, 신성모독, 성적방종, 구교신앙, 출교자의 성만찬 참여, 개신교신앙 불순종, 가정문제, 권위불복종, 우상숭배, 술 취함, 욕(모독, 험한 말)등이었다.¹⁷²⁾

성도의 표지로써 권징을 이해할 때 컨시스토리에 불려온 사람들과 출교된 사람들의 죄목들을 살펴보면 신앙고백 차원의 종교적 이유가 있고, 삶의 모범 차원

169) 16세기 종교개혁에 가장 대표적으로 강력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리버틴(Libertines)과 재세례파였다. 1525년을 전후로 하여 종교개혁도시들에서 급격하게 퍼져갔다. 리버틴은 라틴어 리버티누스(Libertinus) ‘자유자’란 뜻으로 16세기 어떤 종교적 사상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성향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별히 칼뱅이 제네바에서 윤리적으로 단호하게 개혁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였다. 칼뱅 시대에 리버틴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신학적, 정치적, 종교적 리버틴이 있었으며 칼뱅의 개혁에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칼뱅은 리버틴파에 대하여 1545년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Treatise Against the Libertines” 이다. 이 논문은 리버틴파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면서 칼뱅의 신론, 기독교론, 종말론, 기독교 윤리에 관한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170) Robert M. Kingdon, “Calvin in Light of Geneva Consistory Resister,” 23.

17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83-84.

172)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174.

에서 보는 윤리적 이유, 그리고 성만찬 참여 문제 등 크게 3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⁷³⁾ 그러나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출교의 경우에도 가능한 3개월을 넘지 않게 했으며, 또한 일 년에 네 차례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¹⁷⁴⁾ 죄인들의 회개를 통한 회복과 가능한 한 성만찬에 기회를 주려고 애썼던 컨시스토리의 목적과 칼뱅의 목양적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물론 회개를 거부하고 컨시스토리와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피와 이주하는 경우도 생겼다. 1557년에 등장한 “성만찬에 관한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컨시스토리의 권징을 받게 되었을 때 6개월 이내에 컨시스토리로 와서 해벌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의 회교로 보내고 시에서 추방도 가능하게 하였다. 부득이하게 신정도시를 떠나게 됨으로 공동체와 완전 결별(anathema)하는 경우도 생겼다.¹⁷⁵⁾

B. 컨시스토리의 의의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교회 정치체제와 권징에 대한 실재를 보여주었으며 제네바시와 교회 그리고 평신도들의 삶을 개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칼뱅은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을 크게 강조하였다.¹⁷⁶⁾ 종교개혁이 참된 교회를 찾는 운동이었다면 컨시스토리는 성도들이 제네바시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 되도록 상담해주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한 통제 시스템이었다. 제네바시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함으로써 칼뱅은 신정국가를 기대하였다. 결국 칼뱅의 컨시스토리가 영적으로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꿈꾸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평신도들의 참여를 크게 확대시켰다. 과거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수동적이며 교회법 제정에는 어떤 참여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사제에게 복종해야 할 뿐 이었다. 이때 루터를 통해 만인제사장 사상을 주장하였고, 칼뱅은 평신도들의 참여를 조직화함으로써 지역사

173) 이정숙, “출교에 관한 존 칼뱅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327.

174)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177.

175) 위의 책, 182.

176) Phillip Schaff, 『스위스종교개혁』, 401.

회와 교회회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훗날 성공회 교회와 미국의 민주정치와 대의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¹⁷⁷⁾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개신교 신학과 16세기 당시 관례들에 근거하여 제네바 시민들의 이탈된 행동을 저지하고 개신교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르침을 강화시켰다. 킵턴은 컨시스토리는 제네바시를 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회 통제 기구였다고 하였다.¹⁷⁸⁾ 따라서 16세기 컨시스토리 문서(*The Resisters of Geneva Consistory*) 연구는 3가지 의의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칼뱅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재발견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제네바시와 평신도들의 삶과 개혁정신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칼뱅의 컨시스토리의 정신과 엄격한 권정은 정체현상에 있는 학국 교회에 귀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1. 칼뱅의 재발견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칼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해준다. 그동안 칼뱅에 대하여 사람들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와 신화적 인물로 인식하면서 고정된 이해가 있었다. 그래서 칼뱅만큼 역사적 평가가 다양한 인물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칼뱅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면 사람들은 제네바의 신정정치가, 예정론의 주창자, 개신교 운동과 장로교의 조직자,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한 편협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특별히 16세기 이후로 제네바는 전투적인 개혁교회의 도시로 인식되면서 칼뱅을 “제네바의 교황”과 같이 평가하기도 한다.¹⁷⁹⁾

스토페르(Richard Stauffer)는 역사상 칼뱅만큼 오해받고 있는 인물도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칼뱅에 대한 수많은 비판자들과 적대자들이 있었다. 칼뱅에 대하여 신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던 볼섹(Jerome Bolsec)을 시작하여, 재세레파와 리버틴(Libertines)이 있었다. 이러한 칼뱅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새로운 칼뱅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제네바 컨시스토리 문서이다. 이 문서는 칼뱅에 대한 새로운 모든 연구

177) 위의 책, 404.

178) 이정숙, “칼뱅 연구의 최근 동향,” 245-46.

179) 박경수, “칼뱅 연구의 최근 경향,” 320.

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¹⁸⁰⁾

최근에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맥키가 칼뱅의 경건에 관한 책들을 편집하였고 칼뱅이 경건한 목회자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맥키는 칼뱅의 『기독교강요』 자체가 사실은 매우 강한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입장에서의 칼뱅은 진실로 회중들을 돌보는 목회자요, 목회자들의 교사였으며, 그의 경건 또한 목회를 위한 경건으로 보았다.¹⁸¹⁾ 포드 베틀즈(Ford Lewis Battles)도 칼뱅은 조직신학자가 아니라 종교적 영성이 깊은 사람이요, 『기독교강요』 또한 『신학대전』(*summa theologiae*)라기 보다는 “경건대전”(*summa pietatis*)이며, 칼뱅의 정신적 힘이야말로 경건에서 나왔고, 그 경건의 산물이 그의 신학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¹⁸²⁾ 베노잇(Jean Daniel Benoit) 또한 칼뱅이 목회자였음을 강조하였고, 칼뱅의 마지막 유언에서조차도 스스로가 목회자의 자의식을 보여주었는데, 제네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나 장 칼뱅이라고 하였다.¹⁸³⁾ 따라서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본 칼뱅은 신자들을 심방하고 살피는 목양과 교회와 영혼을 치유하는 설교가, 상담가, 목회자이었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본 칼뱅은 언제나 종교적 관용과 신중함을 보였다. 컨시스토리의 권징은 언제나 온유한 사랑에서 출발한 돌봄이었다. 칼뱅은 사도바울의 말씀을 따라 죄인들을 존중하고 권징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잘 사용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형제로 존중하기를 원했다. 칼뱅의 일생을 보면 실제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영혼의 목자였다. 그는 교회를 사랑한 목회자요 설교자였으며, 형제들의 보호자요, 끊임없이 저술 작업으로 신학자와 교육가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따뜻한 아버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¹⁸⁴⁾

킹던은 제네바의 컨시스토리 문서가 칼뱅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이 문서가 칼뱅에 대한 신선하고, 여러 가지를 연상케 하며 신학자와 교사 뿐

180) 이정숙, “칼뱅 연구의 최근 동향,” 231.

181) 박경수, “칼뱅 연구의 최근 경향,” 334.

182) Richard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

183) 박경수, “칼뱅 연구의 최근 경향,” 335.

184) 김재성, “생애: 칼뱅의 전설? 그의 추적자들과 연구과제,” 29.

만 아니라 그가 책임을 맡았던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다루었던 목사로서의 모습이 강하다고 보았다.¹⁸⁵⁾ 내피(William Naphy)는 칼뱅 당시의 시의회, 법원, 컨시스토리 등의 일차 자료들을 연구 분석하면서 칼뱅이 결코 제네바의 독재자가 될 수 없음을 지적 하였다. 특별히 1555년을 중심으로 제네바에서 칼뱅은 목회적인 논쟁, 알력, 명백한 반대들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칼뱅과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¹⁸⁶⁾

특히 1541년에는 슈트라스부르크와 라인 강 연안에 국한되었던 역병이 스위스까지 옮겨 바젤과 취리히의 인구를 감소시킬 정도였고, 1542년 가을에는 제네바에까지 이르렀는데 기근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칼뱅의 명성에 매료되어 그의 그늘에서 박해를 피하려고 몰려드는 난민들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역병 환자 수용소에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때 다른 목회자들은 몸을 사리고 있었지만, 칼뱅과 피에르 블랑세는 환자들을 돌보았고, 블랑세는 목숨 걸고 8-9개월을 돕다가 그 병에 감염되었다.¹⁸⁷⁾ 그만큼 칼뱅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의 목회자였다.

목회자로서 칼뱅은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성도들을 성실하게 보살폈다. 그는 병환이나 타지방의 출타를 제외하고는 항상 컨시스토리에 참여하여 높은 출석률을 보여주었다. 킹던의 지적에 따르면 컨시스토리의 권면과 권고의 상당량이 칼뱅의 의견일 수 있는데 그것은 컨시스토리에 칼뱅의 높은 출석률 때문으로 보았다. 칼뱅의 높은 출석률은 제네바시와 성도들을 위한 목양적 역할로서, 로마 교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들을 인도하여 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다.¹⁸⁸⁾ 당시에 컨시스토리 장로들은 출석률에 따라 사례를 받기도 했다. 반면 사례와 관계없었던 칼뱅의 높은 출석률은 목회자로서의 그의 성품과 성도들의 훈련, 교육에 큰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베자(Theodore Beza)가 기록한 『칼뱅의 생애』(*Life of Calvin*)에서 칼뱅은 복음의 제일 큰 적은 로마의 교황이나 이단이나 미혹케 하는 자들이나 독재자가

185) Robert M. Kingdon, "A New of Calvin in the Light of the Resisters of the Geneva Consistory," 21.

186) William G.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1.

187) 위의 책, 374.

188) 이정숙, "칼뱅 연구의 최근 동향," 245.

아니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칼뱅은 루터보다도 “율법의 제3사용”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 권징과 컨시스토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킹던은 『간통과 이혼』 (*Adultery and divorce*)이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explanation)과 공식적인 충고(formal admonition)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¹⁸⁹⁾ 따라서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법적인 감시기구를 넘어서 죄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고,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충고하는 목양적 기능을 했던 것이다. 개신교의 신앙과 실천적 삶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교구 목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윤리적 타락이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는 경계와 권고 등이 주어졌다.¹⁹⁰⁾ 결국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목회적 활동과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 치리법원이었고, 칼뱅 자신이 또한 경건한 목회자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제네바시의 재발견

스위스 종교개혁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1516년부터 츠빙글리의 죽음과 카펠 평화조약이 있었던 1531년까지 독일어권에서 이루어진 츠빙글리 종교개혁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531년부터 1564년 칼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프랑스어권 스위스에서의 칼뱅주의적 종교개혁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취리히에서 볼링거가 사망한 1575년과 제네바에서의 베자가 사망한 1605년의 사역기간으로 선임 종교개혁자들의 사역을 굳게 한 시기이다.¹⁹¹⁾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시기에 제네바 교회와 평신도들의 삶의 표지들을 강조하였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그들을 돕고 훈련하였다.

이정숙은 컨시스토리 문서의 출현으로 칼뱅신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종교개혁 당시의 제네바에 대한 연구와 제네바 교회, 그리고 평신도들의 삶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칼뱅 당시 제네바는 국제적 정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일과 교회의 권위를 국가에 중속시키려는 시의회가 칼뱅을 중심으로 하는

189)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5.

190) 이정숙, “출교에 관한 존 칼뱅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329.

191) Philip Schaff, 『스위스 종교개혁』, 26.

교회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컨시스토리의 설립과 그 발전을 이해하고 제네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분석하면, 16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국가와 교회의 모습을 재발견 할 수 있게 된다.¹⁹²⁾

16세기 제네바는 츠빙글리의 도시와 루터의 도시를 능가하였다. 제네바는 “프로테스탄트의 로마”가 되어 개혁파 교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제네바는 원래 주교와 백작의 통치를 받았는데, 각기 영적인 정부와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국가가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한다는 전제 위에서 영적인 세력과 세속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두 팔이라고 보고 연합을 강조하였다.¹⁹³⁾ 칼뱅은 세속적인 제네바시를 신정정치 국가로 발전시키려 하였고, 컨시스토리를 조직하여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왔다.

1541년 당시 제네바 정부는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켜 베른의 보호를 받았으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거리에는 날로 소요와 폭동이 증가하였고, 학교에서는 최고의 교사들이 떠나기 시작하였으며, 설교단은 그 힘을 잃었고 새로운 설교자들은 경멸과 동정의 대상이 되었으며, 목회적 보살핌은 찾기 어려웠고 악과 부도덕이 증가하였다. 옛날의 방탕함과 천박한 춤, 도박, 술 취함, 가면무도회, 음탕한 노래들과 음란이 다시 나타났고, 사람들은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추어 벌거벗고 거리를 행진하는 일들도 있었다.¹⁹⁴⁾ 이러한 상황에서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제네바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였고 신자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컨시스토리는 종교개혁사상이 제네바시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프락시스(praxis)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칼뱅 신학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제의 삶으로 나타났고, 종교개혁당시 제네바에서 평신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감안할 때, 컨시스토리는 중세의 권징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이었다. 컨시스토리는 중세교회와 비교할 때, 성직자 중심의 권징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평신도들과 함께 하는 교회의 권징을 강조하였고, 그 방법과 의도와 목적, 정신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한 가톨릭 역사가(Kampsschulte)는 칼뱅이 제네바에 세운 교회에서만큼

192) 이정숙, “칼뱅 연구의 최근 동향,” 234.

193) Philip Schaff, 『스위스 종교개혁』, 224-25.

194) 위의 책, 361.

성직자의 지위가 더 위엄 있고 두드러지며,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사회는 기독교 유럽에서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제네바의 컨시스토리 사역은 주효했다.¹⁹⁵⁾ 제네바 교회는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치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목사회와 치리법원은 제네바 교회를 대표하고 다스렸다. 목사회는 성직자로만 구성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목회자를 취임시키기 위해서는 세속정부와 회중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목회자들과 회중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¹⁹⁶⁾ 그러므로 컨시스토리는 제네바 교회와 세속정부, 회중들과의 관계가 상호협력과 상호견제의 역할과, 평신도들의 삶의 자리들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 회중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규명해 주고 있다.

3.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a. 한국장로교회의 권징

1910-30년에 걸쳐 한국장로교회에서는 엄격한 권징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전 세계에 일으키신 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씀과 회개운동과 관련이 깊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계의 부흥운동은 19세기 말의 무디의 부흥운동과 1904-1905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운동, 1905년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1906년 아주사 거리의 오순절 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¹⁹⁷⁾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한국교회는 1903년 원산 선교사기도회를 시작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에 이르는 세 차례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다.¹⁹⁸⁾ 이러한 부흥운동의 특징은 사경회와 회개운동, 기도운동을 통하여 죄에 대한 단절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흥운동은 죄에 대하여 강한 회개를 전제하였고 따라서 매우 엄격한 권징이 있었다.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특징은 개인적인 영적갱신운동에 그치지 않고 금연과 금주운동, 우상숭배의 근절, 결혼,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개혁운

195) 위의 책, 409.

196) 위의 책, 414

197) 박용규, 『평양대부흥 이야기』, 18.

198) 위의 책, 31.

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변혁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사상적 변화와 문화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한국사회의 악습으로 평가받고 있던 노름, 일부다처제의 관행이 권징을 통하여 치리가 시행되면서 사회악습들이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조상 제사와 우상숭배가 점차 사라지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질, 잡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됨으로써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별히 1910년을 전후하여 교회의 정화,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회복운동이 강하게 나타났다. 길선주 목사는 강단에서 교인 자녀들이 담배를 피운 것을 금하는 것은 물론 담배공장에 나가 일하는 것도 금하도록 촉구했고 교인들은 그대로 실천하였다.¹⁹⁹⁾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권징은 대부흥운동, 사경회, 새벽기도회, 회개운동 등과 함께 사회개혁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비기독교적인 관행과 악습들을 개혁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일반교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무원칙적인 전도방법으로 하다 보니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결여된 교인들이 많았다. 1906년 가을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운동은 1907년 대부흥운동의 서곡이 되었다. 로즈(H. A. Rhodes)선교사는 “한국의 새벽은 교회의 새벽종이 깨웠다”고 했을 정도였는데 이런 두 물줄기, 즉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성경공부와 회개운동,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경회와 새벽기도운동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훈련시켜 갔다.²⁰⁰⁾ 1907년 대부흥운동은 칼뱅이 제네바를 개혁하려 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사회 윤리의식을 불식시키고 새 시대에 새 포도주를 준비하게 하였다.²⁰¹⁾

둘째는 1905년에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한 이후 1907에서 1910년 사이에는 국권이 송두리째 일제에게 강점당했다.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고 1911년에는 105인 사건으로 민족사적 수난이 매우 컸던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의연하게 교회의 사명과 말씀을 지켜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전국 교회

199) 위의 책, 142-43.

200) 김인수,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그리고 그 현재적 의의,” 『세이레 새벽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22.

201) 윤경로,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118-19.

를 한 노회 안에 관리해왔는데, 이것을 1911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7개 노회를 조직하고, 1912년 9월 2일 오전 9시에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역사적인 창립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초대 총회장에는 언더우드(H.G Underwood) 선교사가 선출되고 부회장에 1907년 대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가 선출되었다. 비록 국가는 일제에 주권을 빼앗겼지만 교회는 오히려 당당한 독립을 꿈꾸며 세계교회와 어깨를 같이 하게 됨으로 교회에 대한 책임과 성도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분위가 형성되었다.²⁰²⁾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엄격하게 권징을 시행하였다.

셋째로는 국가의 비운에 통회하는 기독교인들의 내적인 성찰과 초기 한국 교회가 순수복음에 입각하여 민족을 새롭게 하는 사경회와 경건주의 신앙을 가지고, 민족사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신앙은 부흥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애국신앙이 되었다. 한국 교회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신앙과 거룩함을 지키길 원했고, 이를 위하여 권징이 강화되었다.²⁰³⁾ 선교사들에 의해 1907년 한국교회는 비정치화를 감행하였고 이것은 정치보다 성서와 개인의 삶에 집중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순수복음과 경건주의 삶을 살기 위하여 권징은 강력하게 시행되었다.²⁰⁴⁾

이런 점에서 보면 칼뱅의 권징 사상은 한국교회에서도 잘 나타나게 되었다. 칼뱅의 엄격한 치리는 그의 엄격한 신조에 기반하고 있는데,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 청교도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엄격한 칼뱅주의자들을 길러내었다. 칼뱅의 엄격한 치리는 시련과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단련시켰으며,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자유의 주창자들로 만들었다. 이러한 칼뱅의 권징사상이 한국교회에서도 잘 전달되어 엄격한 권징이 나타났다. 칼뱅의 권징에 있어서 원대한 목표는 인간의 연약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칼뱅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고백에 따라 살고, 자신의 신앙을 선행으로 보여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 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랐다.²⁰⁵⁾ 이러한 칼뱅의 목표는 한국장로교회의 권징에서도 잘 나타나서, 세상에서 거룩하고 빛과 소금되는 삶을 강조하게 되었다.

202) 金仁洙, 『韓國基督敎會史』, 192.

203) 閔庚培, 『韓國基督敎會史』 (서울: 大韓基督敎出版社, 1992), 252.

204) 위의 책, 199.

205) Philip Schaff, 『스위스 종교개혁』, 415-16.

b. 교훈

칼뱅의 권징과 컨시스토리의 정신은 한국장로교회의 권징에 교훈하는 점이 많다. 한국장로교회의 권징은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뿌리내리고, 유교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한국교회 당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과 질서회복,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를 한국교회의 당회라고 직역하기는 어렵지만 칼뱅의 컨시스토리의 정신과 역할 등은 한국교회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칼뱅의 권징을 성도의 표지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초기 한국교회 권징에서도 성도의 삶과 신앙의 일치에 매우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였고, 신앙고백을 한대로 살도록 이끌어주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살지 않음을 통탄했다. 칼뱅은 바로 그 점을 착안하여 신앙고백대로 성도다운 복음이 삶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것을 교훈하고 있다. 첫째 칼뱅의 권징이 훈련과 교육적 기능, 성도 사랑에 근거한 목회 상담적 기능, 성화의 기능을 그 목표로 한 것처럼, 초기 한국교회 권징 또한 강력한 사랑에 근거한 목양적 기능과 목회적 차원의 교육과 훈련이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것은 컨시스토리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칼뱅의 권징이 참된 교회를 찾아가고 제네바시가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과거 한국장로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기독교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암울했던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길 소망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1910-30년대 한국장로교회에서는 칼뱅의 컨시스토리의 정신과 목적 등이 잘 나타났다. 엄격한 권징을 수행함으로써 참된 교회를 정착시켰고, 말씀과 삶의 일치를 통하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IV. 결론

A. 요약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시대 속에서 한국장로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가시적인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성도의 참된 삶을 회복해야 한다.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 가시적인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재정립하고,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을 찾기 위하여 성도의 표지를 권징을 통하여 강화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루터의 만인제사장 신학을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의 피라미드식 계층질서와 직제에 반대하였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참된 교회에서 찾으려고 했다. 칼뱅은 루터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권징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한 질서와 훈련, 성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위하여 은혜의 외적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순수한 복음이 설교되고 세례와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대로 거룩하게 집행 되는 곳을 참된 교회로 보았고, 권징은 공동체를 더 온전하고 풍성하며 거룩한 사도적 교회가 되도록 메어주는 띠와 같은 것이었다.

칼뱅의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권징과 치리에 대하여 반대한 것이기도 하였다. 중세교회가 갖고 있는 재판권과 부패한 권징이 성서적이지 못하며 잘못 사용되어 온 칼의 권세였음을 비판하였다. 일찍이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직제에 대하여 저항했던 루터는 만인제사장 신학 속에서 특수 교역직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칼뱅의 장로정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루터가 가톨릭교회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였다면 칼뱅은 가톨릭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치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츠빙글리는 취리히의 개혁자로서 가톨릭교회를 넘어서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가지 위한 수단으로 권징을 강조하였다.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부처는 한층 더 권징을 강조하였는데, 기독교의 권징이야말로 교회의 특징이 된다고 보고 사랑과 규율이 동시에 역사하는 진정한 교회에 말씀과 성례전이

더 은혜롭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는 “권징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규율과 과문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다”²⁰⁶⁾(*Wo kein und Bann ist, ist auch kein Gemein*)고 까지 하였다. 바젤의 종교개혁자 오이콜람파디우스는 교회의 고유한 치리를 펼쳤는데 이것은 칼뱅의 장로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치리의 영향 속에서 칼뱅은 교회와 시의회 의원이 대표하는 치리법원을 만들어 제네바를 신정국가 체제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칼뱅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직제와 질서를 비판하면서 성경적인 믿음과 삶의 일치를 통하여 참된 교회를 찾고자 하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영혼과 같고, 권징은 교회의 근육(sinews)과 같다고 하였다.²⁰⁷⁾ 그러므로 말씀의 신학은 칼뱅에게 참된 교회를 발견하게 했고, 참된 교회는 권징을 통하여 더 힘있게 세상에 설 수 있었다.

재세레파는 교회론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고 올바른 신자의 삶을 위하여 성경 말씀대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순수한 삶을 살아가며 성화된 삶을 위하여 권징을 매우 강조하였다. 재세레파는 구원의 완성과 거룩한 공동체건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매우 강조하였고, 따라서 엄격한 권징을 시행하였다. 재세레파에서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보았다. 재세레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휘브마이어는 가지적인 교회의 표지로서 중생의 경험과 거기에 근거한 확실한 세례, 그리고 신자들의 행동과 복음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는 권징(훈련)이라고 보았다.²⁰⁸⁾ 이에 대하여 칼뱅은 재세레파를 너무 강하고 급진적이며 분리주의로 흐르는 교회 공동체라고 비판하였다.

16세기에 독일의 루터를 시작으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과 재세레파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칼뱅의 권징은 『기독교강요』와 제네바의 치리법원이었던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잘 나타나게 되었다. 칼뱅에게 있어서 권징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1538년 4월 제네바시와 치리권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다가 추방을 당하였고, 1541년 9월 제네바로 다시 귀환할 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치리권과 권징에 대한 보장이었을 만큼, 칼뱅과 제네바 종교개혁에 있어서 권징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206) Paul D. L. Avis,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66.

207) Richard R. De Ridder, "John Calvin's views on Discipline: A Comparison of the Institution of 1536 and the Institute of 1559," 226.

208) William R. Estep, 『재침례교도의 역사』, 280.

칼뱅의 권징이 중요한 이유는 루터의 신학이 이신칭의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는 성도의 표지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과 믿음 있는 행함의 삶이 너무 약해졌고, 로마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너무 강조하여 믿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약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칼뱅은 권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제네바시를 통하여 참된 교회를 형성하여, 성경말씀대로 신정국가를 건설해 가고자 했다. 따라서 칼뱅의 권징은 루터나 로마가톨릭교회를 넘어서도 있다. 권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중요하였다. 칼뱅의 권징은 항상 사랑과 회복을 전제로 한 교육적 기능, 목회적 기능, 그리고 상담적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칼뱅은 1541년 『제네바 교회법령』(*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the Church of Geneva*)에 따라 제네바시에 치리법원(consistory)을 만들었다.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제네바의 시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삶과 그것을 토대로 제네바시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동안 고정되어 왔던 칼뱅에 대한 이해도 다시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칼뱅의 권징신학과 컨시스토리의 정신과 목적 등은 초기 한국 장로교회에서 잘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장로교회에서는 엄격한 권징이 나타났는데 1907년 독노회 설립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강하게 1930년대까지 나타났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새벽기도회, 사경회 등을 통하여 경건한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였다.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개인적인 영적 갱신에 그치지 않고 유교사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참된 평신도의 삶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권징을 통하여 과거의 악습과 비 신앙적인 관행들에 대해 강한 단절을 요구하였고, 이것은 곧 사회개혁운동이 되었다.

또한 한국장로교회의 권징은 칼뱅의 치리와 컨시스토리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었다. 당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심방하고 감독함으로써 평신도들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 목양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에서 권징이 시행되었다. 특히 한국교회의 권징은 사건과 죄인의 외형적인 결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내면과 동기를 상담하고 살펴서 책벌하였다. 엄격한 권징이 이루어졌지만 죄인의 상황과 마음의 동기, 그리고 회개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는 해벌시켜 주었으며 당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랑과 평화, 온유와 화목의 개념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칼뱅의 전통을 따라 권징의 목적이 책벌에 있지 아니하고 회복과 치유, 훈

련과 성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칼뱅의 권징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직제와 비성경적인 칼의 권세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칼뱅의 권징과 컨시스토리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도구였으며, 칼뱅의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는 곳에 가시적인 참된 교회가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안에 두시기 위하여 은혜의 수단으로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신정국가를 이루는데 칼뱅의 권징과 컨시스토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B. 제언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적 진리를 중요시한 나머지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중세교회를 넘어서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의 표지를 찾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정신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응전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일수 있다는 말처럼 한국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도적 신앙전승을 따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과 16세기 종교개혁 전통들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장로교회는 장로교답도록 칼뱅의 전통과 신학사상을 회복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라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한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교회는 가시적 참된 교회로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참된 교회는 생명공동체이다.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교회는 정체현상에 있다.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성도의 바른 삶이 없다면 생명력을 잃게 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말씀과 직제,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다. 칼뱅은 생명력이 없는 중세교회를 개혁하고, 성경말씀대로 참된 교회를 찾고 제네바에 신정국가를 이루어가고자 하였다.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직자와 생명 없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인으로서 경건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제네바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인의 비판대상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세상을 이끌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기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다. 칼뱅이 찾았던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 사도적 신앙전승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 진리의 빛으로 일어서야 한다. 1903년 원산 선교사기도회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올해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정체현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지난 날 이 땅에 주셨던 참된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교회의 권세와 함께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키프리아누스의 말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칼뱅 말처럼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의 참된 교회가 이 땅에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어머니는 생명이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칼뱅이 일평생을 참된 교회를 찾고 보존함으로 어머니의 생명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회에 의하여 잉태되고 양육 받으며 죽을 몸에서 벗어나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교회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²⁰⁹⁾ 이 생명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길 소망한다.

둘째 한국교회에 권징을 회복할 것을 제안한다. 권징은 교회의 질서와 권세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면서 매우 유익한 것이다.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며, 공동체의 화목과 일치로 가져다주는 은총의 수단이다. 이제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의 한국교회는 권징을 회복해야 한다. 권징은 교회와 경건한 자들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는 자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를 세워줄 것이다. 베르코우워(J. C. Berkouwer)는 칼뱅의 권징에 대하여 그것은 은혜의 기원이며 구원의 관점에서 교회를 더 찬탄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징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통제해 주는 은총의 수단이다. 루터의

209) J.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edited by John T. McNeill. vol. 2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칼뱅의 의로운 삶으로 증거 되는 믿음이 삶의 한자리에 만나고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에비스는 『기독교강요』를 『신학대전』이라기보다는 “경건대전”이라고 하였을 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경건이라고 보았다. 칼뱅의 권징과 컨시스토리 사역은 신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컨시스토리는 신자들에게 교육, 상담, 훈련, 회복, 치유, 화목, 일치, 성화의 역할을 해 주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생명력 있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해 주며, 교회를 크게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칼뱅은 권징을 교회의 세 번째 표지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칼뱅 주의자들과 재세례파에서는 권징을 복음, 성례와 함께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 인정한다. 그만큼 권징은 중요한 주제였다. 부처의 견해대로 권징은 교회의 특징이 되고, 사랑과 규율이 동시 역사할 때 복음과 성례전이 더 은혜롭게 진행되게 한다. 부처와 재세례파에는 권징이 없이는 교회가 없고, 교회에 규율과 파문이 없으면 교회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별히 재세례파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주교 없이 교회가 없다는 말은, 권징 없이 교회가 없다”²¹⁰⁾(no bishop, no church was no discipline, no church)는 말로 재미있게 바꾸어 표현 하였다. 따라서 권징은 교회공동체와 잘 어울리며 이신칭의와 성화 그리고 세상에서 신정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었다. 이런 권징이 하루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엄격한 권징이 1910-1930년대까지 잘 나타났었다. 엄격한 권징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신앙부흥과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였다. 초기 한국교회의 권징은 교회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함으로 유교사회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 사회변혁과 애국적 신앙을 고취시켰으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오늘날 엄격한 권징을 행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 권징이 있어도 교회를 옹기거나 교단을 탈퇴하면 거의 대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은 시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사도들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은총의 수단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징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권징의 절차이다. 칼뱅

210) Kenneth R. Davis, "No Discipline, No Church,"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XIII, no.4 (1982), 58.

의 권징신학이나 컨시스토리의 정신은 물론이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사도적 전승들을 따라서 권징의 과정과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권징의 대표적인 정신으로 크리소스토무스의 ‘온유’의 개념과 키프리아누스의 ‘평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화목’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한국교회도 권징을 통하여 새롭게 신앙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권징이 칼뱅의 역사적 전통을 따라 시행되어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고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길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사역과 연합,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직제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칼뱅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직제에 대한 비판으로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 참된 교회 공동체와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정치 사상이 장로정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개혁운동은 장로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멜란히톤, 츠빙글리, 부처, 아라스코 등과 같은 개혁자들은 성경적인 교회정치체제를 밝히 고자 하였고, 이것은 칼뱅의 장로제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칼뱅은 장로 제도를 통하여 평신도들의 교회 참여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칼뱅의 컨시스토리는 목사 12명과 장로 12명으로 구성된 치리법원으로 교역자와 평신도의 연합체였다. 이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의 열쇠권한을 평신도들에 옮겨온 것이기도 하였다. 개혁교회의 직제는 상호 평등하며 서열이 아닌 동역으로, 차별이 아닌 구별로, 지배가 아닌 섬김을 직제 간에 강조한다. 그래서 칼뱅의 권징 사상은 철저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목양이 되었다. 컨시스토리는 신자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살피고 상담하며, 교육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목양적 기능을 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봉사하기 위한 목양의 도구와 은총의 수단이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했고 권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었다. 초기 한국교회의 권징에서도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권징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겸손과 섬김을 보여준다.

칼뱅은 스스로가 말씀과 삶의 일치를 위하여 늘 스스로의 경건에 힘썼다. 『기독교강요』에는 경건이라는 말이 180회 이상 등장할 정도로 경건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칼뱅의 경건은 주목을 받는다. 실제로 칼뱅은 컨시스토리에 매우

높은 출석률을 보이면서 신자들을 살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죽기 전까지 컨시스토리 사역을 계속하였다. 1542년에는 역병이 제네바에까지 퍼졌는데, 그때도 칼뱅은 피에르와 함께 환자들을 섬겼다. 다른 목사들이 꺼려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삶에 모범을 보였다. 칼뱅은 항상 삶으로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으로 제네바에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하였다.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하면서 율법의 제3사용의 삶이 약한 편인데, 칼뱅은 복음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복음적인 삶의 실재를 보여주었다.

칼뱅은 컨시스토리 사역을 통하여 제네바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였다. 그리고 범죄 한 사람들을 징죄하고 치리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상담하며,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양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칼뱅은 늘 ‘어머니의 품’과 ‘아버지의 회초리’의 균형을 이루어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지도자들의 출선수범을 강조하였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하디선교사와 길선주 목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경건한 삶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지도자들의 섬김의 리더십이 잘 나타나지 않고, 평신도들과 동역이 쉽지 않다. 교회의 직제를 피라미드식 계층질서로 이해하고 항존직의 선거와 총회장 선거를 보면 개혁교회의 정신이 사라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 칼뱅의 권징신학과 컨시스토리의 정신을 통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살아나길 바란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생활의 일치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권세가 이 땅에 회복되길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1. 동양서적

- 곽안련. 『長老教會史 全彙集』. 朝鮮耶蘇教書會, 1935.
- 김인수 편. 『韓國神學思想史』.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동교회 100년사(1984-1994)』. 서울: 연동교회, 1995.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세이레 새벽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역사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閔庚培.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92.
- 박건택. 『종교개혁사상선집』. 서울: 솔로몬, 2004.
- _____. 『칼뱅작품선집』.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이야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새문안교회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 100년사』. 서울: 새문안교회, 1995.
- 윤경로.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서울: 역민사, 1992.
-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이야기』. 서울: 흥성사, 2006.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4.
- _____.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_____. 『세계교회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기독교강요 요약』.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4.
- 이형기교수 은퇴논문편집위원회. 『이형기교수 은퇴논문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 오덕교. 『장로교회사』. 서울: 합동신학대학 출판부, 2006.
- 장수민. 『칼빈기독교강요 분석』. 서울: 칼빈아카데미, 2006.
- 최윤배 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오늘의 개혁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황규학. 『장로교회는 없다』. 서울: 에큐메니칼연구소, 2005.
- 한국교회사학회 편. 『예수長老老會史記』 上 . 1968.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간.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기독교교문사, 1991.
- 한국칼뱅학회. 『칼빈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_____. 『칼뱅연구』 제1집 (2001).
- _____. 『칼뱅연구』 제2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_____. 『칼뱅연구』 제3집 (2005).

2. 서양서적

- Avis, Paul D. L.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Wipf & Stock Publishers, 2002.
- Balke, Williem.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Tr. William J. Heynen. Ewrdmans Publishing Co., 1981.
- Calvin, J.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Edited by John T. McNeill. Vol 2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7.
- Caswell, R. N. *Calvin's View of Ecclesiastical Discipline in John Calvin*. ed. G. E. Duffield. Appleford. Berks: Sutton Courtenay Press, 1966.
- Johnson, Robert C. *Authority in Protestant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9.
- Kingdon, Robert M.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Harvard College printed, 1995.
- Muller, Richard. *The Unaccommodated Calv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Naphy, William G.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3. 번역서적

- Avis, Paul D. L.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서울: 컨콜디아서, 1987.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상, 중, 하.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 (1536).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Estep, William. R. *The Anabaptist Story*. 정수영 역. 『재침례교도의 역사』.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Gorge, Timothy . *Theology of the Reformers* . 이은선, 피영민 역. 『개혁자들의 신학』. 서울: 요단출판사, 2000.
- Kan, Blue and John White. *Church Discipline That Heals*. 김기찬 역. 『치유와 회복이 있는 권징』. 서울: 기독교교문사, 2000.
- Leith, John 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양낙홍 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Neve, J. L. 서남동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8.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 개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_____. *History of the Apostolic Church*. 이길상 역. 『사도적 기독교』.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Stephens, W. P. *Zwingli: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경수 역.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풍만출판사, 1995.

4. 논문

권평. “初期 韓國教會의 治理에 관한 研究 - 김포읍교회 당회록을 중심으로.”

- 미간행 한국교회사학회발표논문 (2005).
- 김영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의 수단 이해 : 도나투스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형기교수 은퇴논문집』 (2004).
- 김인수.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그리고 그 현재적 의의.”
『세이레 새벽에』 (2007).
- 박경수. “부처와 칼뱅 : 16세기 교회일치의 옹호자들.” 『칼뱅연구』 (2005).
- _____. “칼뱅 연구의 최근 경향.”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리고 신학』 (2004).
- 배경식. “교회정치: 칼뱅의 장로교 정치와 제3의 길.” 『칼뱅연구』 (2005).
- 송인설. “장로직분의 역사적 발전과 신학적 전망.”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9집
(2006).
- 이양호. “칼빈파의 제네바와 재세례파의 후터 공동체의 이상.” 『기독교사상』
(1989. 5월호).
-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n Consistory) - 칼뱅의 신학과 목회의 접
목.”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제18집 (2000).
- _____. “출교에 관한 존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최근의 칼빈
연구』 (2001).
- _____. “칼뱅 연구의 최근 동향.” 『신학사상』 제111집 (2000 겨울호).
- 이형기. “칼빈 신학에 있어서 목사직과 장로직.” 『교회와 신학』 (2003 겨울호).
- 최윤배. “마르틴 부처의 교회론 -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교회.” 『최근의 칼빈연구』
(2001).
- 한철하. “신학방법: 칼빈의 과학적 신학방법.” 『최근의 칼빈연구』 (2001).
- 황정욱. “칼뱅과 오늘의 개혁 교회 - 교회론을 중심으로.”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오늘의 개혁교회』 (2004).
- Underwood, H. G. “Underwood’s Letter to Dr. Ellin wood.” (Sep. 27. 1877).
『새문안교회70년사』 (1958).
- Kenneth, R. Davis. “No discipline. No Church: an Anabaptist Contribu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Sixteenth Century Journal XIII*. No 4, 1982.
- Reid, J. K. S. “The Genevan Confessio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 Ridder, Richard R. De. “John Calvin’s Views on Discipline.”: A

Comparison of The Institution of 1536 and The Institute of 1559. *Calvin's Ecclesiology : Sacraments and Deacons*. edited by Richard C. Gam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2.

Fulop, Timothy E. "The Third Mark of the Church?" - Church Discipline in the Reformed and Anabaptist Reformations. *The Journal of Religious History*. Vol 19. No.1, 1995.

5. 학위논문

김일석. "20세기 초반 파시즘에 저항한 교회." 미간행 신학석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6.

유장춘. "목회적 돌봄(설교, 심방, 권징)을 통한 교회 성장의 본질적 패러다임." "Essential paradigm of Church growth through pastoral care (Sermon, Home visit and Discipline)", Th. M. Dissertation Submitted to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2004

Jung-Sook Lee. "Excommunication and Restoration in Calvin's Geneva 1555-1556."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7.

6. 기타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

http://www.ydpc.org/110_history_photo/1.pdf.